

제 7 회
학 심 호
술 총 남
대 연 문
회 구 헌

일재 이항의
학문과 사상

7. 4 목 13:30
정읍시청 대회의실

주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주관

정읍문화원 | 남고서원 | 한국학호남진흥원



CONTENTS

제7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일재 이항의 학문과 사상

개회사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환영사 김영수 정읍문화원장원장

축사 소병돈 남고서원장

발표문 오보라 일재 이항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 11
고려대학교

안유경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 고찰 27
경북대학교

이종근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47
새전북신문

좌장 김창호 원광대학교

토론문 최혜미 「일재 이항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을 읽고 69
충북대학교

이형성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과 고찰」을 읽고 71
전남대학교

김희경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읽고 ... 73
고려대학교

조일형 「一齋 李恒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을 읽고 75
한국학호남진흥원

개 회 사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오늘 우리는 일재 이항(一齋 李恒, 1499-1576)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선생의 종생지인 정읍에서 개최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항 선생은 호남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서 김인후 기대승 등과 함께 ‘호남5학(湖南五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선생의 언행과 활동은 조선 후기 이래 네 차례 간행된 <일재집>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2024년 <일재집>의 국역본 간행을 기념하여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항 선생의 조선 성리학사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고려대의 오보라 교수님, 경북대의 안유경 교수님, 새전북신문의 이종근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원광대의 김창호 교수님을 비롯한 충북대의 최혜미, 전남대의 이형성, 고려대의 김희경 교수님, 그리고 우리 진흥원의 조일형 박사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의 학술행사를 축하와 함께 격려해주신 정읍문화원의 김영수 원장님과 남고서원의 소병돈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일재 이항 선생의 학문적 업적이 오롯이 빛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읍시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성주이씨 문중 및 남고서원 어르신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 모든 분께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 고문헌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리 그리고 주요 문헌의 국역 성과를 DB로 구축하여 시·도민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김영수(정읍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세상은 더욱 맑아지고 깊어진다고 합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더없이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학술대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재 이항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뜻깊게도 정읍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한국학호남진흥원 홍영기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발표자, 토론자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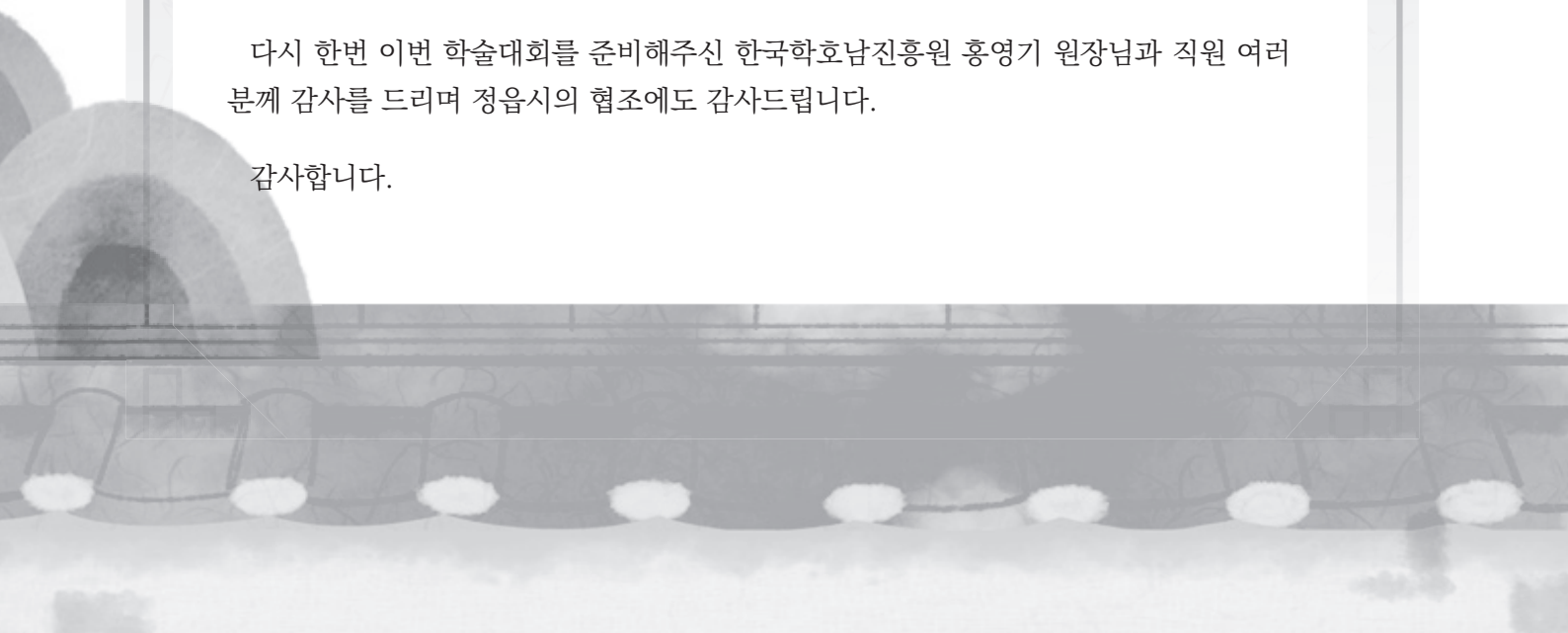
일재 이항 선생은 우리 정읍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학자, 문인입니다. 우리 호남 유학의 비조로서, 호남 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일재 이항 선생의 제자인 건재 김천일, 오봉 김제민 선생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고, 안의와 손홍록 선생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습니다. 선생과 제자들 모두 뜨거운 우국충정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정읍문화원에서도 일재 이항선생의 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학술대회 진행과 학문과 사상, 업적 등을 정리한 연구서 발간입니다. 이를 통해 실천하는 정읍의 시민의식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재 이항선생의 학문의 폭넓은 연구와 사상의 계승·발전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재 이항 선생의 사상과 이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아가 그 가치와 사상사적 의의를 세상에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한국학호남진흥원 홍영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소병돈(남고서원장)

일재 이항이 살았던 16세기는 조선조의 성리학이 오롯이 착근되는 시기입니다. 리(理), 기(氣), 태극(太極), 음양(陰陽)의 개념들이 비로소 대중에게 개념화되어 학문의 용어로 일반화되고, 성리학을 천착한 학자 그룹들이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주장하여 소위 조선조 성리학이 활발한 백가쟁명 시대였습니다. 일재 이항은 일체일물설을 주장하여 퇴계와 의견을 달리하기도 했고 사상과 학문은 비록 도처의 주장이 달랐지만, 이 시기는 분명 다가올 목릉성세를 잉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풍토에서 양극단의 주장을 배격하고 수준 높은 학문풍토를 선도한 분이 바로 일재 이항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으나 문인이자 학자이며 사상가로 당시 조선과 특히 호남지역의 학풍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일재 이항에 대한 추념은 선조 10년(1577)에 처음 사우가 창건되었고, 숙종11년(1685)에 사액을 받았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1871년 철폐되었다가, 1927년 복원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오보라 선생께서 “일재 이항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을, 경북대학교 안유경 선생께서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 고찰”을, 그리고 새전북신문의 이종근 선생께서 “이항의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발표해 주십니다.

이항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문학, 역사, 철학의 세분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합니다. 그것은 학제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염천에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가 이항 연구의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이항의 문학과 역사 철학 및 서원의 활용방안을 장래에도 본격적으로 다룰 “일재학(一齋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노심초사하신 정읍문화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 관계자께 감사드리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 원로의 노정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재 이항의
학문과 사상

☞ 발표문

| 일재 이항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

| 오보라 고려대학교

|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 고찰

| 안유경 경북대학교

|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 이종근 새전북신문

一齋 李恒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

오보라(고려대학교)

<목차>

1. 머리말
2. 일재의 학문에 대한 당대 평가
3. 일재의 교유 양상과 그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一齋 李恒(1499~1576)은 16세기 호남 유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隱峯 安邦俊(1573~1654)은 竹川 朴光前(1526~1597)의 행장에서 호남의 대표적 학자로서 박광전과 더불어 河西 金麟厚(1510~1560), 高峯 奇大升(1527~1572), 일재 이항, 眉庵 柳希春(1513~1577)을 꼽았으며,¹⁾ 澤堂 李植(1584~1647)도 호남의 학풍을 이야기하면서 이항과 기대승을 함께 거론하여 “湖南의 경우에는 상도에 이일재가 있고, 하도에 기고봉이 있다.”²⁾ 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도 호남의 대표 학자를 논할 때 이항은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데, 예컨대 梅山 洪直弼(1776~1852)은 호남의 학자로서 김인후, 기대승, 이항, 안방준, 朴光一(1655~1723)을 꼽았고,³⁾ 고종 때 湖南 五賢의 문묘 배향 논의가 나왔을 때도 호남 오현에 이항이 포함되어 있었다.⁴⁾ 즉 이항은 호남 유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실제로 이항은 호남의 巨儒인 김인후, 기대승 등과 교유하며 太極陰陽과 理氣에 대해 논하였다. 이항은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태극은 이와 기를 겸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기가 둘인 듯하나 혼연한 일물의 체이다.”⁵⁾라고 하였다. 이와 기를 하나로 보는 이항의 입장은 기대승과 김인후로부터 비판받았으며, 이기의 관계에 관한 이 세 사람의 논변은 이항에게도 알려졌다. 이항은 16세기에 성리학 이해가 심화되던 시기에, 이기 논변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安邦俊, 『隱峯全書』 卷4, 「竹川朴先生行狀」. “吾湖南, 素號文獻之地, 自麗末至于本朝, 以學名世者, 唯金河西·奇高峯·李一齋·柳眉巖及我先生而已.”
 2) 李植, 『澤堂集』 別集 卷15, 「示兒代筆」. “湖南則上道有李一齋, 下道有奇高峯.”
 3) 洪直弼, 『梅山集』 卷19 「答林來卿【宗七〇丁酉】」. “湖南之學, 河西·高峯·一齋·隱峯·遜齋, 最著焉.”
 4) 『高宗實錄』 21年 3月 15日. “八道儒生白夢洙等疏略: ‘湖南有五賢焉, 曰文敬公臣李恒, 文節公臣柳希春, 文孝公臣盧禎, 文忠公臣朴淳, 文憲公臣奇大升也. 其道學之淵精·德業之弘大, 固非後生之所可蠡測, 而略以前賢之撰述者, 舉概仰簞. 伏願聖明垂察焉. ……」”
 5) 李恒, 『一齋集』, 「贈奇正字【大升】書」. “理氣雖似二樣, 而渾然一物之體.”

이처럼 호남 유학의 전개에서 이항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므로, 그동안 이항의 학문 경향과 성리학의 특징, 후대 이항의 추승 과정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다.⁶⁾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이항의 ‘理氣一物說’이 갖는 함의, 이기일물설을 둘러싼 논쟁의 사상사적 의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이항의 학문 경향과 성리설 특징이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 다만 여전히 이항의 학술적 지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초야에 묻혀 있던 이항이 어떻게 학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이항의 인적 네트워크는 16세기 학술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항이 남긴 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⁷⁾ 이항의 학문적 위상을 온당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항과 교유한 인물들의 글을 보다 폭넓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그동안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변 인물들과의 교유 및 평가, 다른 문집에 수록된 이항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호남 학계에서의 이항의 학문적 위상, 더 나아가 조선 학계에서의 이항의 지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일재의 학문에 대한 당대 평가

서울 晨昏洞에서 태어난 이항은 타고난 기질이 호방하였으며 어린 시절에 활쏘기와 말타기 등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항은 젊은 시절 遊俠을 좋아하고 무과 급제를 목표로 삼았으며, 무관인 南致勤(1494~?)·南致勤(1528~1570) 형제 및 閔應瑞(1557~1558)와 어울렸다. 이항이 28, 9세 되었을 무렵 백부 李自堅(1454~1529)의 질책으로 인해 비로소 무과에 대한 뜻을 접고 유학에 종사하게 되었고, 특히 朱熹의 『白鹿洞規』를 본 뒤 크게 감발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항은 40세가 되던 1538년(중종33)에 모친을 모시고 전라도 泰仁縣으로 내려온 뒤 一善郡(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松堂 朴英(1471~1540)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

6) 오항녕(1993), 「一齋 李恒의 生涯와 學問 - 朝鮮性理學 成立期の 한 지식인의 삶과 생각」, 『남명학연구』 3, 경성대 남명학연구소; 정병연(1995), 「一齋 李恒의 理氣一物說」, 『유학연구』 3, 충남대 유학연구소; 정대환(2005), 「一齋 李恒의 性理學(二)」, 『철학연구』 96, 대한철학회; 최영성(2007), 「一齋 李恒의 학문 경향과 특성-諸家記述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최영성(2014), 「一齋 李恒의 학문에 대한 퇴계 이항의 평가-성리설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2, 한국철학사연구회; 김경호(2014), 「일재 이항과 고봉 기대승의 교류와 논쟁에 대한 재독해- 1560년대를 전후한 호남유학의 철학적 문제의식」, 『울곡사상연구』 29, 울곡학회; 이선아(2014), 「一齋 李恒의 학문적 위상 확립과정과 南阜書院」,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역사문화학회; 손흥철(2016), 「李恒의 太極論·理氣論과 사상사적 의의」, 『퇴계학논집』 2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등.

7) 이항이 저술을 많이 남기지 않은 데다가 이항의 유고가 뒤늦게 수습된 탓에 현전하는 『일재집』의 분량은 많지 않다. 이항의 5세손 李星益(1639~1672)의 부탁으로 朴世采(1631~1695)가 이항의 遺文을 교정하고 서문을 썼는데, 이성익이 문집을 간행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자 李俊耆(1609~1676)가 사업을 이어받아 1673년에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초간본에 실린 이항의 글은 시 22제 22수, 산문 24편으로 매우 소략하다.

시고 가르침을 받다가, 다시 태인현으로 돌아와 ‘一齋’라는 서재를 짓고 학문에 전념했다.⁸⁾

이항은 비교적 늦게 학문을 시작한 데다가 뚜렷한 사승 관계도 없었다. 40대 초반에 박영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기는 하였으나, 이항이 태인현에 낙향한 시기가 1538년이고 박영의 몰년이 154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항이 박영 문하에서 수학한 것은 만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또 이항이 늘 “동지를 쫓아다니는 것은 유익함이 없으니, 방 안에 단정히 앉아서 절실히 면려하는 것이 더 낫다.”⁹⁾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이항은 특정 인물의 학문을 계승하려는 의식은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뚜렷한 사승 관계 없이 自得의 학문을 추구하며 은거했던 이항이 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결정적 계기는 圭菴 宋麟壽(1499~1547)와의 만남이다. 송인수는 1543년(중종 38)에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태인현에 있는 이항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이항의 나이는 45세였다. 송인수는 당시 泰仁縣監이었던 朴應川(?~1581)에게 보내는 시에서 태인현의 이항, 호자 鄭彦忠을 편지로 초대해 함께 琴曲을 들으며 풍류를 즐긴 풍경을 묘사했다.¹⁰⁾ 송인수는 이항의 학문이 깊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항을 만나본 뒤 그 학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湖海之南有一人	호해 남쪽에 한 사람 있으니
不求榮宦不憂貧	영화로운 벼슬 구하지 않고 가난 근심치 않아라
閒中日月工夫在	한가로이 세월 보내는 가운데 공부 있으니
大學書中味更眞	『대학』 속에 학문의 맛 더욱 참되구나

위 시에서 송인수는 이항이 은거하는 가운데 『대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송인수의 언급과 같이 이항의 학문 중심은 『대학』에 있었다. 이항은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평생의 정력이 『대학』에 있다.”라는 주희의 언급을 인용했으며,¹¹⁾ 그 외에도 누차 『대학』 공부가 학문의 강령임을 피력하였다.¹²⁾ 이처럼 『대학』에 주안점을 두고 학문에 매진하는 이항의 학문 태도에 대해 송인수는 높이 평가했다.

이항에 대한 송인수의 평가 가운데 당대에 더욱 주목받은 것은 바로 ‘이항이 송나라 학자 張載(1020~1077)에 버금간다’는 평가이다. 박세채가 쓴 『일재집』 서문을 보면, “송인수

8) 이상 이항의 행적은 盧守愼의 「有明朝鮮國中訓大夫掌樂院正一齋先生李公墓碣銘【并序】」에서 발췌한 것이다.

9) 盧守愼, 『一齋集附錄』, 「有明朝鮮國中訓大夫掌樂院正一齋先生李公墓碣銘【并序】」. “追尋同志無益, 不如端斂一室, 喫緊鞭辟.”

10) 宋麟壽, 『圭菴集』 卷1, 「喜雨, 仍次泰仁東軒韻, 呈主倅年伯朴君渾仲【應川】」. “芙蕖清絕激頑夫, 恨殺秋霜一半無. 涼入酒杯悲作客, 景催詩句喜成珠. 西邨李老難孤約, 古縣鄭生亦可呼. 況有琴師傳妙指, 陽春一曲起余娛. 【李處士恒·鄭孝子彥忠, 縣人也. 馳書邀之, 琴師趙光琳, 適至李處士家, 亦招之.】”

11) 李恒, 『一齋集』, 「答奇正字書」. “朱子曰: ‘平生精力, 盡在『大學』.’”

12) 李恒, 『一齋集』, 「又復南秀才書」. “君須精熟四書, 必先讀『大學』, 融會透見, 一部『大學』在於胸中, 而非孔子·顏子之道, 乃我之心事則看他書, 如氷解凍釋, 着不得多工夫.”; 李恒, 『一齋集』, 「示金君永貞」. “但『大學』, 群經之領, 須統讀『大學』, 融會貫通, 則看他書便易.”

공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맨 먼저 선생을 찾아와서 도를 강론하고 말하기를, ‘실천이 어찌 꼭 張橫渠보다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¹³⁾ 송인수의 이 언급은 『규암집』에는 보이지 않으나, 당대에 널리 회자된 것으로 보인다. 이항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문인들이 지은 祭文과 挽詞에서 공통적으로 이항을 장재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인 柳忍의 제문에서는 “한 번 변하여 도에 이르니, 횡거의 바른 추향이었습니다.[一變至道, 橫渠之正趨.]”라고 하였으며, 문인 南彦縝(1531~1607)의 제문에서는 “용감히 고비를 거두어, 횡거와 그 도를 같이 하셨네.[勇撤臯比, 道同橫渠.]”라고 하였다. 또 1577년(선조 10)에 이항을 남고서원에 배향할 때 내려진 『南臯書院賜額祭文』에서도 “옛날의 누구와 유사한가, 횡거와 더불어 같았도다.[在古誰似, 橫渠與同.]”라고 하였다. 훗날 李肯翊(1736~1806)의 『연려실기술』에도 박세채 서문에 나오는 송인수의 언급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송인수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항을 장재에 비견한 것인가. 바로 이항이 무예를 좋아하던 젊은 날의 기질을 버리고 성인의 도로 나아가 수양에 힘쓴 것이 장재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하물며 용감하게 孫武와 吳起의 兵家에서 탈피하여 한번 변화시켜 道의 경지에 이르렀고 우뚝이 실천하고 정밀히 나아간 우리 一齋先生 같은 이는 어찌 기이하고 걸출하여 고금의 제현보다 빛나지 않겠는가?¹⁴⁾

② 선비들이 일제히 그의 문하로 달려간 것을 보면 자신만의 師道를 잘 확립하였기 때문이니, 깨우치고 申飭하여 氣質의 변화를 우선시하였다.¹⁵⁾

③ 그의 先祖는 淸州人이었다. 젊었을 적에는 무예를 배웠는데, 용력(勇力)이 남들보다 빼어났다. 그리고나서 『大學』에 潛心하여 氣質을 변화시키고 드디어 독실한 학문을 하는 군자가 되었다¹⁶⁾

④ 드디어 스승의 도리를 엄히 세워 이끌어 주고 경계하면서 氣質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였는데, 사대부와 名士들이 모두 추앙하였다. ¹⁷⁾

위 예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항이 젊은 시절 무예를 좋아하던 기질을 변화시켜 유학에 나아갔으며, 제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氣質變化’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위 예문①에서는 장재에 대한 주희의 『횡거선생화상찬(橫渠先生畫像贊)』에 나오는 표현을 원용하여 이항의 학문 궤적을 장재에 비견하고 있다.¹⁸⁾ 이 ‘기질변화’는

13) 朴世采, 『一齋集』, 「一齋先生集序」. “宋公麟壽出按, 首訪講道曰: ‘實踐何必減張橫渠?’”

14) 朴世采, 『一齋集』, 「一齋先生集序」. “而況勇逃孫吳, 一變至道, 卓然實踐而精詣, 如我一齋先生者, 詎不奇偉絕特, 有光于古今諸賢哉!”

15) 盧守愼, 『一齋集附錄』, 「有明朝鮮國中訓大夫掌樂院正一齋先生李公墓碣銘【并序】」. “見士人翕然趨之, 則能自立師道, 提誨戒飭, 以變化氣質爲先.”

16) 『明宗實錄』 21年 閏10月 11日. “其先淸州人也. 少也, 業武, 勇力絶人. 既而潛心『大學』, 能變化氣質, 遂成篤學之君子.”

17) 『宣祖修正實錄』 9年 6月 1日. “遂嚴立師道, 提策戒勉, 以變化氣質爲主, 搢紳·名流, 翕然推美.”

바로 장재 학문의 근본적인 목표였다. 장재는 학문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보탬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으며, 기질을 변화시켜야 성인의 심오한 경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¹⁹⁾ 그렇다면 송인수가 이항을 장재에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한 까닭은 바로 이항이 ‘기질변화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장재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송인수의 평가는 이항의 학문을 논하는 하나의 정론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송인수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士林으로서 金安老 일파의 집권에 반대하다가 유배를 가기도 했다. 송인수가 이항을 만난 시기는 尹元衡·李芑 등의 미움을 받아 전라도 관찰사로 좌천된 때인데, 송인수는 좌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四書五經을 改刊하는 등 호남 지역의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했다.²⁰⁾ 이후 다시 조정으로 돌아간 송인수는 乙巳士禍 때 화를 입어 賜死되었다. 이러한 행적을 보인 송인수는 호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다. 이처럼 사람에게 추앙받고 있던 송인수의 평가는 이항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송인수 이후 전라도에 관원으로 부임한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항을 찾아와 학문을 논하였다. 예컨대, 申潛(1491~1554)은 1548년에 泰仁縣監으로 부임했을 때 이항을 찾아와 학문 및 治道에 대해 논했으며,²¹⁾ 이항에게 『회암집』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²²⁾ 金宇弘(1522~1590)은 1572년에 羅州牧使로 부임했을 때 이항을 찾아가 만났다.²³⁾ 또 柳埏(1528~?)은 태인 현감으로 부임했을 때 이항을 만난 뒤 그 덕에 감화되어 이항을 스승으로 섬겼다.²⁴⁾ 아울러 호남의 많은 선비가 이항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다.

학자로서 명성이 높아진 이항은 1566년(명종21)에 韓修·南彦經·林薰 등과 함께 經明行修之士로 천거되어 司畜에 봉해졌다. 그리고 1574(선조7)에는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었는데, 구한말 학자 曹兢燮(1873~1933)의 언급에 따르면 隱逸로써 사헌부 벼슬에 제수된 것은 이항이 처음이었다고 한다.²⁵⁾ 이항이 실제로 장령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정에서 이항에 대한 예우가 특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항이 학자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실천이 장재 보다 못하지 않다’는

18) 朱熹, 『朱子大全』 卷85 「六先生畫像贊·橫渠先生」에 “蚤悅孫吳, 晚逃佛老. 勇撤臯比, 一變至道.”

19) 『張子全書』 卷6 「義理」, “為學大益, 在自能變化氣質, 不爾, 卒無所發明, 不得見聖人之奧. 故學者, 先須變化氣質, 變化氣質, 與虛心相表裏.”; 『張子全書』 卷12 「語錄」, “為學大益, 在自能變化氣質, 不爾, 皆爲人之弊, 卒無所發明, 不得見聖人之奧.”

20) 『圭菴集』, 「年譜」, “羅州戶長日記曰: ‘癸卯年, 觀察使宋某下界, 右文興學, 令各官開刊四書五經云.’”

21) 盧守愼, 『一齋集附錄』, 「有明朝鮮國中訓大夫掌樂院正一齋先生李公墓碣銘」, “靈川申君作宰, 進而問學論治, 深加敬重. 由是摺紳·後生·方伯·連率之南北者, 爭以後造其門爲恥.”

22) 李恒, 『一齋集』, 「謝靈川【申潛】送晦菴集」, “山齋忽得晦菴書, 睡覺晴窓眼豁如. 持贈典謨應有意, 從茲活潑得鳶魚.”

23) 金宇弘, 『一齋集附錄』, 「祭文」, “往在壬申, 余宰錦城, 道出高居, 趨拜門屏. 德器天成, 胸次洒落, 一接清光, 鄙吝消滌.”

24) 柳埏, 『一齋集附錄』, 「祭文」, “來此五載, 德薰心感, 自幸得師, 敬事欽服.”

25) 曹兢燮, 『巖棲集』 卷12, 「答曹國賓【光鎬○甲子】」, “南臺之選, 自宣祖初年始. 故李一齋爲吾邦南臺之首, 而今「狀」曰: ‘以掌令·持平, 乃皆不起’, 則無所據矣.”

송인수의 평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항이 ‘기질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이항은 장재의 ‘기질변화’를 실천한 인물로서 평가되고 회자되었다. 몇 번의 사화를 겪으며 사람들이 수양론을 강화해 가던 상황에서, 이항은 장재로 대표되는 성리학적 수양과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추종을 받게 된 것이다.

3. 일재의 교유 양상과 그 의미

이항은 1538년에 태인현에 내려와 정착한 이후, 조정의 부름을 받아 司畜 및 林川郡守를 지낸 1566~1567년을 제외하고는 평생 태인현에 거주했다. 따라서 이항이 교유한 주요 인사들은 호남 지역 문인이었다. 하지만 이항은 호남의 문인 이외에도 近畿, 嶺南 지역 문인들과 폭넓게 교유하며 학문적 토론을 벌였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16세기 영남·호남의 사상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항이 거론되기도 하였다.²⁶⁾ 이항이 교유한 인물들은 1936년에 石印本으로 간행된 『일재선생유집』의 「師友錄」과 「門人錄」에 수록되어 있는데,²⁷⁾ 이를 통해 이항의 교유 범위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우록」과 「문인록」은 이항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작성된 데다가 인물들이 교유의 친밀도가 아닌 생년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退溪 李滉(1501~1570)의 경우처럼 이항과 직접적으로 교유하지 않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우록」과 「문인록」을 통해 이항의 교유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재집』 수록 자료와 여타 문헌 자료를 통해, 이항과 교유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湖南 지역 문인과의 교유

이항이 호남을 근거지로 활동한 만큼, 호남 인물들과의 교유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호남 인물 가운데 이항과 교분이 두터웠던 이들로는 蘇齋 盧守愼(1515~1590), 河西 金麟厚(1510~1560), 高峯 奇大升(1527~1572), 玉溪 盧禎(1518~1578)을 꼽을 수 있다. 노수신은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1547년 3월에 順天으로 유배되고 같은 해 윤9월에 珍島로 移配된 뒤 호남 지역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여러 호남 인사들과 교유했다. 노진은 영남 출신 인물인데, 처가가 南原에 있었던 데다가 호남의 지방관을 역임한 까닭에 호남 인사들과 활발히 교유했다.²⁸⁾ 따라서 호남 지역 문인들과의 교유를 살펴면서 노수신, 노진과의

26) 고영진(2017), 「조선시대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 『영남학』 6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7) 『일재집』은 총 4차례 간행되었는데, 1673년(헌종14)에 초간본이, 1759년(영조35)에 중간본이 각각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1887년(고종24)에는 이항의 9세손 李東莢이 추가로 모은 자료를 모은 『일재속집』을 목활자로 간행되었으며, 1936년에는 年譜와 門人錄, 師友錄, 諸賢唱酬 등이 추가된 『일재선생유집』 4권 2책이 石印本으로 간행되었다. 권오영(2002), 「해제」, 『國譯 一齋先生文集』, 일재선생문집국역추진위원회, 9~11쪽.

교유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수신은 이항과 친척 관계에 있었다. 노수신의 외조부인 李自華는 이항의 아버지인 李自英의 동생으로, 이항은 바로 노수신의 외당숙이다. 이에 노수신은 시에서 “의리로 는 절로 스승과 제자 사이 되거니와, 정리로 는 원래 외삼촌과 생질 사이기도 하네.[義自爲 師弟, 情原是舅甥.]”라고 하였다.²⁹⁾ 노수신은 이항에게 직접 수학한 적은 없고 주로 편지로 교류했는데, 노수신의 아우 盧克愼(1524~?)의 경우에는 태인현에 있는 이항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였다.

先生自以一名齋	선생께서 스스로 서재 이름을 일 자로 하셨으니
爲義非深且大哉	그 의의가 깊고도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賢傳聖經俱可驗	성현의 글에서 모두 일 자를 증험할 수 있으니
吾心物理亦應該	내 마음과 사물 이치도 역시 하나인 것이로다
文章不得見其發	문장도 아직 발현함을 볼 수가 없거니와
狂簡焉能知所裁	광간이 어떻게 재단할 줄을 알겠습니까
摧廢之餘須請益	꺾이어 폐해진 나머지 가르침을 청하오니
免教人喚做牛虻	남에게 우퇴로 불리는 걸 면하게 해 주소서

위 시는 『소재집』 권3에 수록된 「일재에게 올린다[上一齋]」이다. 제목 원주에 “이때 아 우가 장차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가려고 한다.[時舍弟將過請教.]”라고 되어 있어, 이 시는 노수신이 이항에게 아우를 잘 가르쳐주길 당부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 마지막 구절의 ‘牛虻’는 춘추 시대 宋나라 司馬牛·司馬桓魋 형제를 가리키는데, 司馬桓魋는 성질이 포악했으며 심지어 공자를 죽이려고까지 하여 사마우가 늘 근심했다고 한다. 이 시에 서 노수신은 자기 형제들이 사마우·사마환퇴처럼 되지 말도록 훌륭한 가르침을 주기를 이 항에게 당부하고 있다. 『소재집』은 시가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는데, 이 시 바로 다음에 「빙군의 연제가 이미 지났는지라, 울면서 쓰다[聘君練祭已過泣而書之]」라는 시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이 시는 노수신의 장인 李延慶의 小祥이 지난 1549년 무렵에 지은 것으로 추 정된다. 즉 노수신이 진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1549년 무렵에 노극신이 이항에 가 르침을 청하러 간 것이다.

이후로도 노수신과 이항은 시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둘의 교유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人心道心 논쟁이다. 노수신은 1559년에 「人心道心辨」을 지었는데, 이는 羅欽順의 인심도 심설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되어 당대 학자들에게 비판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이항은 노수

28) 『玉溪集』, 「年譜」. “嘉靖十五年【我中宗恭僖大王三十一年】丙申. 先生十九歲. 是年, 聘于思齊堂安公處順之門, 公乃己卯名流也. 先生十三歲赴舉, 從伯氏曆拜, 則公一見知其遠器, 仍索所製文見之, 大異之, 遂有歸以女之意. 公歿後四年, 婚果成焉.” 노진의 장인 安處順은 남원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기묘사화 때 李荇과 함께 연루된 바 있다. 사후에 남원의 寧川書院에 제향되었다.

29) 盧守愼, 『蘇齋集』 卷4, 「奉懷一齋先生示二君子」. 이하 『소재집』 인용문은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문을 인용하되, 일부 수정하였다.

신의 견해가 程朱學이 아니라 나흠순을 따르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수신이 禪學에 빠져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³⁰⁾ 이항 역시 1561년에 2차례 노수신에게 편지를 보내 노수신의 설을 비판했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 이항은 “우리 동방 도학의 전함이 오직 그대를 의지하는데 그대마저 정암의 궤변에 현혹되어 시비를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³¹⁾ 이항은 “인심과 도심은 모두 이와 기가 마음에서 상호 발한 것”이라고 하면서 ‘道心은 體, 人心은 用’으로 보는 나흠순의 설은 堯·舜·禹가 전한 심법과 어긋난다고 하였다.³²⁾

노수신과 이항의 인심도심 논쟁은 노진에게도 전해졌다. 노진은 이항이 “노수신이 근래 나흠순의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다행스럽게 여겼다고 하였다.³³⁾ 『일재집』에는 1561년 이후에 노수신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지 않아 노수신의 학설에 대한 이항의 생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을 통해, 노수신이 나흠순의 설을 따르는 것에 대해 노진과 이항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며 노수신-이항-노진 사이에 나흠순의 인심도심설에 관한 논쟁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

노진도 이항과 친밀하게 교류했던 인물이다. 노진이 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이항을 만났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노진은 이항을 만나 『대학』을 논한 뒤 그 宗旨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³⁴⁾ 노진은 이항 이외에도 曹植, 이황, 신잠 등에게도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다. 노진은 1562년에 이항과 함께 龍泉寺를 유람하였는데, 이때 지은 이항의 시가 『일재집』에 수록되어 있다.³⁵⁾

한편 노진과의 교류는 신잠, 桃灘 邊士貞(1529~1596), 浣溪 金禧年(1510~1592)과의 교류와도 관련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잠은 태인 현감으로 부임했을 때 이항을 찾아와

30)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6 「重答奇明彦·別紙」. “往者, 人言(寡悔)頗悅禪味, 中間又聞其尊信『困知記』, 滉猶不之信. 及見其所爲「人心道心吟」二絕句, 心甚疑之, 以爲寡悔不應至此, 恐或好事者假稱. 今得來示, 乃親與之款叩, 而其言論旨意如此, 令人悼心失圖. 奈何奈何? 大抵整庵於道, 非不窺一斑, 只是於大源頭處錯認了, 其餘小小議論, 雖多有合理處, 皆不足貴. 不謂(寡悔)許多年紀用力於此事, 想不草草, 而其見處乃不合於程·朱, 而反合於整庵也. ……若(寡悔)誤處, 似是從禪學中錯入路頭來, 往者所聞, 爲不虛矣.”

31) 李恒, 『一齋集』, 「與盧寡悔【守愼】書」. “吾東方道學之傳, 專恃吾君, 君亦惑於整菴之詭論, 莫知是非, 可勝嘆哉!”

32) 李恒, 『一齋集』, 「與盧寡悔【守愼】書」. “且人心道心, 皆是理氣之交發於方寸之間, 而公私幾微之妙用也. ……整菴之道心體也人心用也之說, 非徒不識堯舜禹傳道心法.”

33) 盧禕, 『玉溪集』 卷4, 「與盧寡悔書」. “與盧寡悔書久聞公於整庵之說, 多所信服, 而不知其指意所在, 心竊疑焉. ……頃又見一齋, 則言公近悟整庵之說之非云. 僕以爲當今之世, 有望於此事者, 唯公也. 始公之所以信服者何在, 而近日所悟, 乃以朱子註解爲正, 則無奈太晚耶? 僕於一齋之傳, 雖未嘗無疑, 然亦未嘗不以爲幸也. 今承簡尾所示, 又復如此. 然則一齋之傳, 果非公之說也.”

34) 李廷龜, 『玉溪集』 卷6 附錄, 「明朝鮮故資憲大夫, 吏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館事, 藝文館提學, 贈諡文孝公, 玉溪盧先生墓誌銘【并序】」. “早與李一齋論大學, 得其宗旨, 常曰: ‘爲學之要, 尤之『太學』, 篇首十六言, 足矣.’”

35) 李恒, 『一齋集』, 「遊龍泉, 奉贈盧子膺」. “昔共山齋樂, 今逢水石隈. 潛龍臥幽窟, 飛鶴上雲臺. 泯迹工夫大, 當官教化恢. 論心情不盡, 臨別更徘徊.”

학문을 토론하였는데, 신잠은 바로 노진의 妹夫였다. 그리고 노진, 김희년은 변사정과 중형제 사이였으므로,³⁶⁾ 이항과 노진의 만남은 자연히 변사정·김희년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변사정은 이항의 문인으로서, 훗날 柳夢鶴 金千鎰과 함께 노수신을 찾아가 이항의 묘갈명을 부탁하였다. 김희년의 경우 『일재집』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김희년이 이항을 찾았다는 기록이 『소재집』에 보인다.³⁷⁾

다음으로 이항과 김인후의 교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항과 김인후는 사돈 관계로, 이항의 딸이 김인후의 장남 金從龍과 혼인하였다. 김인후 집안과의 혼맥은 서울 출신인 이항이 전라도 태인현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항은 김인후와 친밀한 사이였는데, 이항과 김인후의 우정은 다음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寥寂山齋夜	고요하고 적막한 산방의 밤
有友遠方來	멀리서 벗이 찾아주었다오
君若傳吾道	그대 吾道를 전해 준다면야
共釀我一杯	나의 술 한잔에 같이 취한들 어떠리

- 「답재 김인후에게 주다[贈湛齋金麟厚]」

그런데 김인후는 노수신, 노진과도 교분이 있었다. 김인후는 1533년(중종28)부터 성균관에서 유학하면서 노진, 노수신 등과 친밀하게 지낸 적이 있다. 즉 김인후와 이항은 인맥을 공유하고 있었다.

김인후 못지않게 호남의 유명한 학자인 기대승도 이항과 교유하였다. 이항과 기대승의 교유는 梅堂 金堧(?~1560)을 통해 연결된다. 김점은 이항의 제자이자, 기대승과 사돈 관계였다. 기대승의 장남인 奇孝曾(1550~16160)의 장인이 바로 김점이었다. 이항은 기대승·김인후와 서신을 왕복하며 理氣論에 대해 논변하였었다.³⁸⁾ 김인후와 기대승은 이항이 이와 기를 一物로 보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이 논쟁은 기대승을 통해 이항에게 알려졌다. 김인후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항과 道義之交를 맺었으며, 기대승은 이항과 四七論辨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즉 김인후와 기대승은 이항과 이미 교유가 있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이항의 설이 이항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상 호남 지역 문인들과의 교유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항은 호남에서 활동한 문인들과 혼맥, 학맥으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人心道心, 理氣論, 太極陰陽과 같은 성리학의 주요 명제에 관해 토론하며, 호남 지역 유학의 발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36) 盧守愼, 『穌齋集』 卷4, 「大醉胡書以贈」. “子膺與慶老, 俱是意中人. 【子膺慶老, 皆邊從兄弟. ○按子膺, 盧禎, 慶老, 金禧年.】”

37) 盧守愼, 『穌齋集』 卷4, 「贈別浣溪」. “十二年前別, 三千里外尋. ……登龍說我病, 浮極便成沈. 【溪將過李一齋】”

38) 이항과 기대승은 4차례에 걸쳐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만남에 논쟁에 대해서는 김경호(2014), 앞 논문을 참조.

(2) 近畿 지역 문인과의 교류

이항은 근기 지역 문인들과도 교류했는데, 이항과 교류한 근기 지역 문인 가운데 南彦經(1528~1594)·南彦縝(1531~1607)·南彦紀(1534~?) 형제, 草堂 許曦(1517~1580), 鍾城令 李球(?~1573) 등이 주목을 요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花潭 徐敬德(1489~1546) 문하에서 수학한 이력이 있으며, 이항과도 학문적으로 교류하였다.

먼저 남언경·남언진·남언기 형제와의 교류를 살펴보면, 이항과 이들의 인연은 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항은 젊은 시절 무과를 준비하면서 무관들과 어울렸는데, 이때 이항과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 남치옥·남치근 형제이다. 남치옥은 다섯 아들, 즉 南彦純(1523~1578), 남언경, 남언진, 남언기, 南彦絳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남언경·남언진·남언기의 이름이『일재집』에 보인다. 남치옥은 비록 무과 급제하여 출사하였지만 학문을 좋아했다고 한다.³⁹⁾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그의 아들 가운데 남언경, 남언진, 남언기는 儒者로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남언경, 남언진, 남언기는 이항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이항이 이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敬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보인다.⁴⁰⁾ 남언기는 훗날 이항의 만사에서 “일심은 강건하여 항상 경을 지키고, 사자에 침잠해 오래 참됨 쌓으셨네. [一心强矯常持敬, 四子沈潛久積眞.]”라고 하며 이항의 가르침을 떠올리기도 했다.

남치옥의 아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인물은 남언경이다. 남언경은 당대 사람들에게 학문을 인정받아, 1566년에 조정에서 經行修之士를 초빙할 때 이항과 함께 천거되었다. 이항은 남언경과 이기설 뿐만 아니라『中庸』 費隱章에 대해서도 논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費隱의 도는, 나누어 말하면 費는 본래 비이고 隱은 본래 은이며, 합하여 말하면 비의 이면裏面에 은 역시 있습니다. 비와 은은 일체이니 形而上者를 은이라 하고 形而下者를 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개 비라는 것은 氣에 속하고 은이라는 것은 理를 위주로 하여, 이와 기가 비록 두 가지이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니 둘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금의 학자들이 이와 기를 혹은 지나치게 나누어 둘로 만들고, 혹은 지나치게 합하여 하나로 하니,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⁴¹⁾

남언경은 비와 은을 각각 형이상과 형이하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항은 그러한

39)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15, 「挽南僉知【致勛】」. “武藝身登仕, 文資行若儒, 專城民袴有, 清座客甞無.”; 南九萬, 『藥泉集』 第24, 「五代祖考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行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府君墓表」. “雖以武進, 好樂問學, 蚤起飭冠帶, 讀書竟日.”

40) 李恒, 『一齋集』, 「答南秀才【彦紀】書」. “蓋尊其所聞, 別無方法, 敬之一字, 不失於心上, 而聖經賢傳, 不離於眼前, 則自然心通乎道, 而尊其所聞矣.”

41) 李恒, 『一齋集』, 「答南時甫【彦經】書」. “費·隱之道, 分而言之, 則費自費, 隱自隱, 合而言之, 則費之裏面, 隱亦在焉, 費與隱爲一體也. 不可謂形而上者爲隱, 形而下者爲費也. 蓋費者屬乎氣, 隱者主於理. 理氣雖是二物, 而其體則一也, 二之則不是. 古今學者, 理與氣, 或太分而爲二, 或太合而爲一, 殊不知一而二二而一焉. 此無他故也, 學問之功, 未能居敬窮理而盡精微也.”

남언경의 견해에 반대하였다. 비은을 형이상과 형이하로 나누어 보는 것은 당초 허엽이 주장한 것으로, 허엽, 남언경, 이항은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것 같다. 이들의 논쟁은 허엽의 사위이자 이항의 문인인 禹性傳(1542~1593)을 통해 이항에게도 전해졌다. 우성전은 이항에게 보내는 問目에서 이항의 위 편지를 인용하여 그 설의 타당성을 물었다.⁴²⁾ 이항은 이항과 마찬가지로 비를 형이하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항의 설은 형이상과 형이하를 하나로 몽땅그러서 결국 ‘물을 가리켜 도라고 하는[指物爲道]’ 楊時의 병폐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⁴³⁾

한편, 이항은 남언경의 妹夫人 炯菴 韓胤明(1526~1567)과도 교유하였다. 『일재집』에는 이항이 한윤명에게 보낸 편지가 1통 수록되어 있다.

또 이항은 남언경과 교분이 두터웠던 허엽과도 교유했다. 허엽은 노수신, 이항과도 교유한 인물이다. 이항과 허엽의 교유에서 주목할 것은 ‘心先動’에 대한 논쟁이다. 허엽은 ‘心이 먼저 동하는가, 性이 먼저 동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이항에게 물었는데, 이항은 주희의 설과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심이 먼저 동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⁴⁴⁾ 이 설 역시 이항의 문인들에게 전해졌다.

허엽과는 ‘心先動’ 이외에도 이기론에 대해 논했는데, 그 과정에서 언급된 인물이 종성령 이구이다. 이구는 이와 기를 一體로 보는 이항의 견해를 옳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⁴⁵⁾ 이항과 이구의 만남은 태인현으로 낙향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항은 30대에 학문에 뜻을 둔 초기에, 서울에서 이구, 閔箕(1504~1568), 羅湜(1498~1546) 등과 함께 尹鼎(1490~1536) 문하에서 수학하였다.⁴⁶⁾ 윤정은 『주역』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윤정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인연으로 인해, 이항은 태인현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구와 교유를 이어갔다. 이항은 성리설에 있어서는 이구와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구가 매와 개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는 등 벗으로서 規諫하며 이구와 우정을 나누었다.⁴⁷⁾

42)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10, 「答禹景善問目」. “右一齋答南彥經書也. 草堂說: ‘費·隱, 以形而上下爲言.’ 奇【大升】·鄭【惟一】諸公皆以爲不可, 而今觀一齋之說, 以費隱分屬理氣則然矣, 而不可以形而上下爲言者, 則與之同焉.”

43)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10, 「答禹景善問目」. “至如公所舉本章小註, 先生雖有形而下者甚廣之云, 必繼以其形而上者實行乎其間, 無物不具, 無處不有, 故曰費. 費, 言用之廣也云云, 其不以費爲形而下亦明矣. ……一齋之說, 一出一入, 令人不可捉摸, 所見不明, 固應如此. 若如公說, 又欲合形而上下, 作一團物事妄說去, 此便是龜山楊氏無適非道之說所以差入於指物爲道之害, 不惟昧於形而上下之別, 而墮於釋氏作用是性之失, 且使學者, 誤謂道無不在, 吾既知之, 則雖猖狂妄行, 亦無適而非道矣, 其可乎?”

44) 李恒, 『一齋集』, 「答許參議書」. “示心先動之卞, 蓋天人一理, 天道之元亨利貞, 人性之仁義禮智, 皆氣先動而理亦行焉. 是以朱子曰: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於此亦可見其氣先動也. 夫耳目之視聽, 所以視聽者, 卽其心也. 孟子曰: ‘見孺子入井, 而有怵惕惻隱之心.’ 見則感也, 惻隱則性發也設使瞽者在井側, 雖孺子入井, 必又有惻隱之情, 是瞽者無非性情, 而目無見焉. 故心不能遇物卽感, 雖有惻隱之端, 無自以見矣. 於此亦見其心先動也.”

45) 李恒, 『一齋集』, 「答許參議書」. “理氣所以爲一體者, 叔玉以爲不可.”

46) 許曄, 『草堂集』, 「長吟亭遺稿序」. “初從尹鼎叔先生學, 與閔右相箕·宗室鍾城令球·李一齋恒, 考德問業於其門, 皆得爲大儒.”; 『草堂集』 附錄, 「摭錄」. “尹鼎叔【名鼎】: 坡平人, 人品甚高, 始學, 未有所立, 礪志成就, 通夕不寐, 如是三年, 浩然之氣自生. 正源【羅湜】: 叔玉【鍾城令球, 號蓮坊】: 景說【閔箕】恒之【李恒, 號一齋】: 皆師尊之.”

이상 근기 지역 문인들과의 교유양상을 살펴보았다. 이항은 태인현으로 내려오기 전 서울에 거주하면서 근기 지역 문인들과 친교를 맺었는데, 이항과 교유한 이들 가운데는 남언경, 허엽, 이구 등 화담 계열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항은 이들과 이기론, 심선동 문제 등에 관해 토론하였다. 그런데 이항의 문집이 소략한 데다가 남언경·이구의 경우는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이들이 토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향후 이항의 성리설을 논할 때, 화담학파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嶺南 지역 문인과의 교유

이항과 영남 문인과의 교유로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송당 박영과의 교유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항은 태인현으로 내려온 뒤 일선군에 사는 박영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항이 박영에 대해 “朴松堂의 理學은 또한 의심할 만한 곳이 있는데 문인들이 실상보다 지나치게 추존한 듯합니다.”⁴⁸⁾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영남에서 박영은 꽤 영향력 있는 학자였던 듯하다. 이항은 박영 문하에서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공부하였고, 이후로는 다시 태인현으로 돌아와 스스로 학문을 익혔다.

이항과 영남 문인과의 교유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황이다. 이항은 영남의 종장인 이황과 직접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이항과 이황은 많은 인맥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항의 학설이 이황에게도 알려졌다. 앞에서 살펴본 인물들 가운데, 노수신, 김인후, 기대승, 남언경, 허엽 등은 모두 이황과도 깊이 교유하며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항의 학문이 이황에게 각인된 결정적 계기는 이항과 김인후·기대승 사이의 태극 관련 논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황은 기대승과 四七論辨을 벌였는데, 사칠논변은 1559년에 시작되어 1566년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황은 사칠논변 초기인 1560년에 기대승을 통해 호남 학자들의 간의 논쟁을 접하게 되었다.

卷末에 기록하여 보내준, 그대가 李·金 兩君과 태극을 논하면서 대여섯 차례 왕복하며 변난辯難한 글은, 사람의 意思를 계발하고 眼目을 띄워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난을 보고서 곧 호남에 이러한 인물과 議論이 있음을 알게 되니, 실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인지라 깊이 감탄하고 흠모하여 쏘리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의론의 시비·득실 같은 것은 옛날 여러 현인들의 모두 일정한 설이 있으니 오늘날에 논쟁할 바가 아닙니다만, 공이 一齋[이항]에게 은미한 뜻을 논변하여 설명해 준 것은 모두 옳았습니다. 湛翁[김인후]은 다만 간단한 몇 마디 말이 있었을 뿐이나 역시 그 大旨를 볼 수 있었으니, 내가 어찌 감히 다시 함부로 그 시비의 와중에 들어가겠습니까.⁴⁹⁾

47) 李恒, 『一齋集』, 「答許參議書」. “古人有玩鶴者, 程子曰: ‘玩物喪志.’” 好鷹犬者, 甚於玩鶴者也, 此亦朋友相規之道, 須傳諸叔玉, 幸甚.”

48)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5, 「答南時甫」. “松堂之理學, 亦有可疑處, 而其門人推尊, 似恐過實.”

기대승이 자신과 김인후·이항 간에 벌어진 논쟁을 편지에 적어 이항에게 보내자, 이항은 위와 같이 답하였다. 이항은 이기와 태극 음양에 대한 치열한 학문적 논쟁이 오고 간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항은 이항의 학문적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 학문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했는데, 기대승의 편지를 보게 비로소 이항의 학문을 알게 되었다며 다행이라 하였다.⁵⁰⁾ 그런데 이항은 이항의 인품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항의 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하였다. 즉 이항의 理氣一物說, 心先動에 대한 주장, 비은장의 해석 등에 대해 이항은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⁵¹⁾ 특히 이항은 이항의 학문 태도, 즉 ‘徑約’ 한쪽에 치중하여 박학에 힘쓰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을 문제로 여겼다.⁵²⁾

이처럼 이항은 이항의 학문을 비판했지만, 문인들과 주고받는 편지에서 이항의 견해를 자주 언급했다. 이항은 기대승·허엽·남언경과 같이 이항과 직접 교유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항의 설에 대한 평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성전·金就礪(?~1234)·琴蘭秀(1530~1604)처럼 이항과 교분이 없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항을 언급했다. 이는 당시 영·호남 학계에서 이항의 설이 파급력을 갖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이항은 이항의 문인들과 폭넓게 교유했다. 이항의 제문·만사를 지은 사람들 중에도 이항에게 수학한 이들이 다수 보이는데, 沈義謙(1535~1587), 鄭惟吉(1515~1588), 崔應龍(1514~1580), 申沃(1534~1619) 등이 있다. 게다가 영남 문인들의 문집을 보면, 이항과 이항 문인들의 교유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항은 기대승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龜巖 李楨(1512~1571)을 통해 인심도심에 대한 이항의 설을 보았다”라고 하였다.⁵³⁾ 이정의 『구암집』에서도 이항이 1565년에 이항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항의 설을 함께 적어 보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⁵⁴⁾ 이항의 편지에 의하면, 이항이 나흠순의 잘못을 논한 편지를 이정에게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⁵⁵⁾ 이를 통해 이항이 구암 이정과도 학문적으로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이항과 栢潭 具鳳齡(1526~1586)의 교유도 확인된다. 구봉령은 안동 지역 선비로 1545년에 이항 문하에 들어가 수학한 인물이다. 구봉령은 이항을 방문하여 元나라 학

49)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6, 「後論·別紙」. “卷末錄示與李·金兩君論太極書五六道, 往復辯難, 足以發人意思, 開人眼目……今因見此, 乃知湖南有如此人物議論, 實乃吾東魯鮮見之事, 深用歎慕, 不任傾馳. 若其論之是非得失, 則昔之群賢, 皆有一定之說, 非今日之所當爭, 而公之舉似一齋以辯明微義者, 皆已得之; 湛翁雖只有寂寥數語, 亦已見其大旨. 滉何敢更冒入於是非林中耶?”

50)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6, 「答奇明彦【庚申】」. “李一齋, 久聞其名, 未知其學之如何, 今蒙示以論太極相與往復之說, 雖亦未暇參詳, 猶見其大槩, 幸甚幸甚.”

51) 이항에 대한 이항의 비판에 대해서는 최영성(2014), 앞 논문 참조.

52)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6, 「後論·別紙」. “以滉觀之, 一齋之據徑約一邊而譏諂務博, 固爲大病.”;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6, 「答奇明彦【庚申】」. “然觀其識趣議論, 不能無病, 亦在夫過於自信, 堅於自用而已.”

53) 李楨, 『龜巖集』 卷1 別集, 「與金【字銜未詳○乙丑】」. “今去退溪之狀, 善傳爲望. 李恒之氏所論, 在其中而封之, 俟還當上之. 所祝珍齋萬安, 再枉是望.”

54)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6, 「重答奇明彦」. “曾得李剛而所示李一齋說, 并剛而書鄙說二紙呈似, 試垂鑒裁, 因書誨及.”

55) 李滉, 『定本 退溪全書』 卷6, 「重答奇明彦·別紙」. “李一齋嘗與李剛而書, 論整庵之失, 剛而寄示來.”

자 許衡의 출처에 관해 토론했는데, 구봉령과 이항은 이전에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⁵⁶⁾ 또 이항과 조식의 문하에서 수학한 德溪 吳健(1521~1574)도 1570년에 御史 兼 災傷敬差官이 되어 호남에 갔을 때 태인현에 있는 이항을 방문한 적이 있다.⁵⁷⁾

이상 이항과 영남 문인들과의 교유를 살펴보았다. 이항은 호남 지역의 학술 논쟁 한가운데 있었고, 당대 이항의 학설은 영남 문인들에게도 널리 공유되었다. 특히 이항이 교유한 인물 가운데 다수가 퇴계 이황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항의 설이 더욱 영남 지역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영남 지역 이항의 문인들은 직접적인 만남이나 서신 왕복을 통해 이항과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4. 마무리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 이항이 활동했던 16세기는 조선 학계에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시기로서, 이기심성, 태극음양 등 주요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뒤늦게 학문에 종사한 이항은 규암 송인규의 평가, 즉 ‘실천이 장재보다 못하지 않다’는 평에 의해 사람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항은 장재의 ‘기질 변화’를 실천한 학자로서 널리 이름을 알렸다.
- 이항은 호남의 태인현을 기반으로 활동했으나, 호남 지역 문인들 뿐만 아니라 근기 지역, 영남 지역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 이항은 노수신, 김인후, 기대승, 허엽, 남언경 등과 성리학 개념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이는 영남에도 알려졌다. 이항의 설은 16세기 학계에서 전국적으로 논쟁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항과 주변인물들의 토론은 당대 이기론 등의 성리학 이론이 정교하게 발전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할 수 있다.
- 아울러, 이항의 교유 양상을 통해, 학파를 이루어 활동하되 지역이나 학파에 국한되지 않고 학맥과 혼맥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교류했던 16세기 학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 향후 이항의 성리설 연구에서는 화담 학파와의 관계, 퇴계 학파와의 관계가 더욱 심도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6) 具鳳齡, 『栢潭集』 권3, 「訪李一齋【論許文正衡事, 一齋以爲得權, 齡以爲失大節, 餘不足數, 一齋不以爲可, 力難回罷. 蓋一齋以文正之仕元, 當擬太公, 亦以其功比管仲, 故舉曾西之事難之.】」. “京塵曩日暫窺門, 客路天涯復挹薰. 堂室未堪窮閭奧, 淵源那得泝坻濱. 夷吾不是曾西比, 平仲元非尚父羣. 數語未明疑未透, 深思徹夜更朝曛.”

57) 『德溪先生年譜』 卷1. “四年庚午. 八月. 以御史兼災傷敬差官, 覆審湖南, 啓請珍山郡蠲減田賦及順天府突山島牧場, 勿禁耕稼. 訪李一齋于泰仁縣.”

<참고 문헌>

李恒, 『一齋集』, 한국문집총간28.

李恒 著, 권오영 譯(2002), 『國譯 一齋先生文集』, 일재선생문집국역추진위원회.

具鳳齡, 『栢潭集』, 한국문집총간39.

盧守愼, 『穌齋集』, 한국문집총간35.

盧禎, 『玉溪集』, 한국문집총간37.

李植, 『澤堂集』, 한국문집총간88.

李楨, 『龜巖集』, 한국문집총간33.

李滉, 『定本 退溪全書』, 퇴계학연구원.

宋麟壽, 『圭菴集』, 한국문집총간24.

安邦俊, 『隱峯全書』, 한국문집총간80.

吳健, 『德溪集』, 한국문집총간38.

曹兢燮, 『巖棲集』, 한국문집총간350.

許曄, 『草堂集』, 한국문집총간36.

洪直弼, 『梅山集』, 한국문집총간, 295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고영진(2017), 「조선후기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 『영남학』 6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김경호(2014), 「일재 이항과 고봉 기대승의 교류와 논쟁에 대한 재독해- 1560년대를 전후한 호남유학의 철학적 문제의식」, 『울곡사상연구』 29, 울곡학회.

손흥철(2016), 「李恒의 太極論·理氣論과 사상사적 의의」, 『퇴계학논집』 2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오항녕(1993), 「一齋 李恒의 生涯와 學問 - 朝鮮性理學 成立期の 한 지식인의 삶과 생각」, 『남명학연구』 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이선아(2014), 「一齋 李恒의 학문적 위상 확립과정과 南臯書院」,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역사문화학회.

정대환(2005), 「一齋 李恒의 性理學(二)」, 『철학연구』 96, 대한철학회.

정병련(1995), 「一齋 李恒의 理氣一物說」, 『유학연구』 3, 충남대 유학연구소.

최영성(2007), 「一齋 李恒의 학문 경향과 특성-諸家記述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최영성(2014), 「一齋 李恒의 학문에 대한 퇴계 이항의 평가-성리설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2, 한국철학사연구회.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 고찰

안유경(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1. 서론
2. 일재 이항의 이기론
 - (1) 리와 기는 一物이다: 기대승 비판
 - (2) 김인후와 이구 비판
3. 일재 이항의 심성론
 - (1) 심과 성은 一物이다: 심이 성보다 먼저 움직인다
 - (2) 인심도심설: 노수신과 나흠순 비판
4.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李恒(1499~1576)의 성리학적 특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항의 본관은 星州. 자는 恒之, 호는 一齋, 시호는 文敬이다. 타고난 기품이 굳세고 용맹하여 일찍이 무예에 뜻을 두었으나, 백부 李自健의 권유로 30이 넘어 비로소 학문을 시작한다. “젊어서 弓馬를 익혀 기개와 용기가 매우 뛰어나서 그와 대적할 자가 없었다. 나이가 서른이 넘어 비로소 학문할 것을 깨닫고 비로소 『대학』을 읽었다.”¹⁾ 선산의 송당(박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박영 역시 무인출신이다. “송당 박선생이 도가 있고 또한 무인으로 진출했다는 <말을> 듣고 굳은살이 박이도록 가서 종유하였다.”²⁾

이항은 공부를 늦게 시작한 탓에 욕심내어 이것저것 독서하지 않고 주로 《사서》에 집중한다. “성인이 되는 공부로, 주자는 다만 四書を 말하고 다른 책은 말하지 않았으니, 원컨대 그대들은 잡다한 책을 보지 말고 반드시 四書を 정밀히 숙독하고 투철히 이해하여 자신의 도덕사업으로 삼은 후에야 六經에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크게 변하여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된다.”³⁾ 결국 《사서》가 성인이 되는 학문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이항의 학문은 《사서》를 입문처로 삼지만, 특히 『대학』을 중시한다. “다만 『대학』은 여러 경전의 강령이니, 반드시 『대학』을 통독하여 관통하면 다른 책은 보기가 쉽다.”⁴⁾ “다만 『대학』에 나아가 읽고 생각하여 평생의 사업으로 삼았다.”⁵⁾

40세 때 전북 태인에 낙향한 이후에는 화서(김인후)·고봉(기대승)·소재(노수신) 등

1) 『一齋續集』, 「遺事」, “少習弓馬, 豪勇絶人, 人莫與之敵. 年踰三十, 始悟爲學, 乃讀大學.”

2) 『일재집』序, <朴世采>, “既而聞松堂朴先生之有道, 亦由武進, 重趼往從之.”

3) 『일재집』, 「示諸生」, “作聖之功, 朱子只言四書, 不言他書, 願諸子勿觀雜書, 須精熟四書, 融會透見, 爲自家道德事業, 然後可及六經. 然則大而爲賢, 化而爲聖.”

4) 『일재집』, 「示金君永貞」, “但大學, 群經之領, 須統讀大學, 融會貫通, 則看他書便易.”

5) 『一齋續集』, 「遺事」, “只就大學上, 俯讀仰思, 爲終身事業.”

과 태극이나 인심도심을 토론하며, 초당(許曄)·동강(南彦經) 등 화담(서경덕)계열의 학자들과도 교류한다. 특히 “호남에서 위의 지역에는 일재(이항)가 있고 아래 지역에는 고봉(기대승)이 있다”⁶⁾라는 말처럼, 그의 학문은 호남의 유생들에 의해 ‘모범이 되는 스승(師表)’으로 추송된다. 이에 홍직필은 그의 『매산집』에서 이항을 화서(김인후)·고봉(기대승)·은봉(안방준)·손재(박광일)와 함께 ‘호남의 다섯 학자(湖南之五學)’로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이항에 대한 당시 또는 후대의 평가는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기대승에 따르면, “이항은 당초 무예에 종사하여 경거망동한 사람이었으나, 각성하고 배울 줄 알아 공부하였으니 그 용기가 옛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 닫고 독서하여 덕과 도량 역시 이루었다.”⁷⁾ 기대승은 이항이 덕과 도량을 겸비한 학자로 평가한다.

반면 이항에 따르면, “그 말의 시비는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니 응당 후일을 기다려 의심스러운 것을 올리겠다. 다만 옛사람이 말한 ‘자기만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있는 줄 모르는’ 병통이 있음을 느꼈는데, 이는 작은 병통이 아닐 듯하니 어찌하겠는가. 한두 군데 글의 뜻을 잘못 본 곳이 있으나 논할 것까지는 없고, 오직 먼저 이 병통을 제거한 후라야 이 학문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⁸⁾ 이항은 이항의 병통이 그 학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만 알고 남은 알지 못한다’ 즉 나만 옳다고 하는 지나친 자신감과 고집에 있다고 평가한다.

송시열 역시 이항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나 “주자의 설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경솔하게 의견을 세운 소치이니, 깊이 후학의 경계로 삼을 만하다.”⁹⁾ 김창협도 마찬가지로 “일재 학문의 공로는 남명보다 나은 듯하다. 그러나 리에 대한 식견이 주밀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하서(김인후)와 고봉(기대승) 같은 자들을 모두 후학같이 보고 지도하였으니, 퇴계가 논한 몇 마디 말이 바뀔 수 없는 정평이다.”¹⁰⁾ 즉 이항에 대한 이항의 비판적 평가가 정당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이항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당시 기대승·김인후·노수신 등과 주고받은 태극과 인심도심의 서신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성리학적 특징을 고찰한다. 이러한 성리학적 특징 속에서, 이항이 왜 당시 또는 후대의 많은 학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일재집』附錄, 「遺事」, “湖南則上道有李一齋, 下道有奇高峯.”

7) 『一齋續集』, 「遺事」, “李恒則當初業武妄行之人, 而悟而知學, 做得工夫, 其勇與古人何異. 閉門讀書, 德器亦成.”(이 글은 『高峯集』, 「論思錄」에 나온다.)

8) 『일재집』附錄, 「遺事」, “其言之得失, 非區區所及, 當俟後獻所疑也. 但已覺有古人所謂但知有己, 不知有他人之病, 此恐不是小病, 奈何. 其有一二段文義錯看, 不足論也, 惟當先去此病, 然後可與論此學耳.”

9) 『宋子大全』卷90, 「答李汝九」, <庚戌二月十日>, “是蓋不深究朱子說而輕易立論之致, 深可爲後學之戒也.”

10) 『農巖集』卷32, 「雜識.內篇(2)」, “一齋問學之功, 勝似南冥. 然見理未周而自信太過, 如河西高峰, 皆視同後學而指教之, 退溪所論數語, 宜不容改評矣.”

2. 일제 이항의 이기론

(1) 리와 기는 一物이다: 기대승 비판

먼저 이항은 자신이 태극과 음양의 논의를 역설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태극의 논의를 두 번 세 번 역설하는 것은 내가 이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깊이 우려해서이다. 호남에서 우뚝 서서 도학을 하는 자는 그대(김인후)와 기군(기대승)이다. 기군과 그대가 이와 같이 말하니, 나는 학자들이 쏠리듯 따르고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두렵다.¹¹⁾

이 글은 이항이 김인후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이항이 태극과 음양의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이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왜곡될까 하는 깊은 우려 때문이다. 당시 호남의 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기대승과 김인후 둘뿐인데, 이들이 모두 태극과 음양을 분별할 것(二物)을 주장하니, 이로써 호남의 학자들이 모두 이들을 추종하고 다시는 태극과 음양이 一物임을 알지 못할까 걱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항은 태극과 음양을 二物로 보는, 즉 ‘태극은 음양과 섞지 않고 말한 것이다’¹²⁾라는 기대승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태극도」 속에서 말한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上一圈에서 태극의 본체만을 끄집어내어 말한 것이니, 이것은 오로지 리만을 말하고 기를 말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것을 해석한 자가 말하기를, “음양에 나아가서 그 본체를 가리킨 것이며 음양을 섞지 않고 말하였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下一圈은 리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니, 이것은 태극의全體와 大用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없으므로 그것을 해석한 자가 말하기를, “음양이 하나의 태극이니 精粗와 本末에 피차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대는 上一圈의 리와 下一圈의 도를 분별하지 않고 온통 ‘태극은 음양과 섞지 않고 말한 것이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잘못된가.¹³⁾

주돈이는 만물의 생성과정을 다섯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 그림은 ○(무극이태극)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음양이며, 세 번째 그림은 오행이고, 네 번째 그림은 남녀이며, 다섯 번째 그림은 만물이다. 주돈이의 「태극도」는 ○-음양-오행-남녀-만물의 생성과정을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음양·오행·남녀·만물 속에도 ○이 모두 내재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태극(리)에서 만물이 생성되며, 동시에 만물은 모두 태극을 가지고 있으니, 예컨대 “태극은 별도로 하나의 물건이 되지 않으니, 음양에 나아가서는 음양에 있고, 오행에 나아가서는 오행에 있으며, 만물에 나아가서는 만물에 있다”¹⁴⁾라는 것이

11) 『일재집』, 「答湛齋書」, “太極之論, 再三力焉, 吾非好勝也, 深有憂焉. 湖南, 挺然特立而爲道學者, 君與奇君也. 奇君與君如是云, 則吾恐學者靡然從之, 而不能更思也.”
 12) 『일재집』, 「贈奇正字(大升)書」, “奇正字云, 太極不雜乎陰陽而爲言耳.”(『高峯集』, 「兩先生往復書」卷1, <湛齋與一齋小柬>, “然道器之分, 不能無界限, 則太極陰陽, 恐不可謂一物也.”(이항이 인용한 문장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
 13) 『일재집』, 「贈奇正字(大升)書」, “太極圖中所謂不雜乎陰陽者, 其於上一圈, 挑出太極本體而言, 是專言理而不言氣, 故釋之者曰, 卽陰陽而指其本體, 不雜陰陽而爲言耳. 下一圈, 兼理氣而言, 是太極之全體大用無不備, 故釋之者曰, 陰陽一太極, 精粗本末無彼此也. 君不辨上一圈之理與下一圈之道, 而通謂之太極不雜乎陰陽而爲言, 何其謬哉.”

그것이다. 모든 만물에는 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리는 사람에 내재되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性(본성)이 된다.

기대승이 말한 ‘태극은 음양과 섞지 않고 말한 것일 따름이다’는 것은 주돈이의 「태극도」 가운데 상일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때는 태극의 본체만을 끄집어내어 말한 것이니, 이것은 전적으로 리만을 말한 것이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주자는 그것을 해석하여 “음양에 나아가서 그 본체를 가리킨 것이며 음양을 섞지 않고 말하였을 뿐이다.”¹⁵⁾ 즉 태극의 본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지 음양을 섞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돈이 「태극도」의 하일권(음양·오행·남녀·만물)은 리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니, 이것은 태극의 全體(온전한 본체)와 大用(큰 작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없다. 여기에서 ‘태극의 全體’는 리를 가리키고, ‘태극의 大用’은 기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주자는 그것을 해석하여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니 精粗와 本末에 피차가 없다.”¹⁶⁾ 즉 음양에도 하나의 태극(리)이 갖추어져 있으니, 음양과 태극은 정조와 본말에 조금의 간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돈이의 「태극도」에는 그 리만을 가리켜서 말한 ‘상일권’과 리와 기를 겸하여 말한 ‘하일권’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대승의 ‘태극은 음양을 섞지 않고 말한 것이다’는 말은 「태극도」의 ‘상일권’과 ‘하일권’을 분별하지 않고 ‘상일권’의 관점에서만 말한 것이니 잘못이다. 이렇게 볼 때, 이항은 리와 기를 겸하는 一物 속에서 리(태극)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항은 태극과 음양이 분리되면 어떤 사물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태극이 양의를 낳기 전에는 양의가 참으로 태극의 법도 내에 존재하고, 태극이 이미 양의를 낳은 후에는 태극의 리가 또한 양의 속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양의가 생기기 전이나 생긴 후나 원래 태극을 떠나지 않는다. 만약 서로 떠나면 사물은 <존재할 수>없으니, 아! 도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내가 말한 ‘서로 떠나면 사물이 없다(相離則無物)’라는 다섯 자를 대충 보지 말기를 바란다.¹⁷⁾

태극과 음양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一物이다. 『역』에서의 “태극이 양의(음양)를 낳는다”는 말 역시 태극이 음양에 앞서 있다가(서로 떨어져 있다가) 음양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다. “태극이 양의를 낳기 전에는 양의가 참으로 태극의 법도 내에 존재한다.” 즉 태극이 음양을 낳기 전에도 태극 속에는 이미 음양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으니, 태극과 음양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만약 리에서 보면, 비록 아직 사물이 있기 전에도 이미 사물의 리는 있다. 그러나 다만 그 리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사물이 있

14) 『朱子語類』卷94, “太極非是別爲一物, 卽陰陽而在陰陽, 卽五行而在五行, 卽萬物而在萬物.”

15) 『太極圖解』, “卽陰陽而指其本體, 不雜乎陰陽而爲言耳.”

16) 『太極圖解』, “陰陽一太極, 精粗本末無彼此也.”

17) 『일자집』, 『贈奇正字(大升)書』, “余以爲太極未生兩儀之際, 兩儀固存乎太極之度內, 而太極已生兩儀之後, 太極之理, 亦存乎兩儀之中矣. 然則兩儀之未生已生, 元不離乎太極也. 若相離則無物矣, 嗟呼. 非知道者, 孰能識之. 余所謂相離則無物五字, 幸勿凡視也.”

은 것은 아니다”¹⁸⁾라는 말이다.

또한 “태극이 이미 양의를 낳은 후에는 태극의 리가 또한 양의 속에 존재한다.” 즉 실제로 음양이 생겨난 후에는 태극이 음양 속에 존재하니, 이로써 음양에는 음양의 리가 있고 오행에는 오행의 리가 있으며 만물에는 만물의 리가 있다. 결국 음양이 생겨나기 이전이든 음양이 생겨난 이후든, 태극과 음양은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 만약 태극과 음양이 서로 떨어진다면, 어떠한 사물도 존재할 수 없다. 이때 리는 다만 형이상의 원리·이치일 뿐이므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기 속에 내재하니, 이 기가 없으면 리 역시 실릴 곳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항은 ‘<리와 기가>서로 떠나면 사물이 없다’는 말을 대충 보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대승은 이항의 이론이 一物이라는 현상에 치중하여 본체에 대한 논의가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相離則無物이라는 다섯 글자는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지론이다. 그러나 만약 본체에 밝지 못하다면 이 다섯 글자가 또한 어디에 귀착되겠는가.”¹⁹⁾ 현상세계는 본체에 근거하여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으니 “도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즉 도를 아는 자만이 리와 기가 一物임을 알 수 있으니, “여기를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면, 리와 기가 혼연한 一物임을 알 수 있다.”²⁰⁾

이어서 이항은 리와 기가 一物임을 사람의 몸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또한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이니, 마치 사람의 지각·운동·강약·청탁의 기가 한 몸에 충만한 것은 음양의 기이고, 또한 인·의·예·지의 부류가 기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은 태극의 리와 같다. 그렇다면 리와 기는 마땅히 한 몸의 안에 있으니, 이것을 二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²¹⁾

하늘과 사람은 같은 이치이니, 천지만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리와 기로 구성된다. 사람이 지각·운동·강약·청탁과 같이 한 몸을 구성하는 것은 음양의 기이고, 이때 인·의·예·지가 음양의 기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태극의 리이다. 음양의 기로써 형체를 이루면 또한 인·의·예·지의 성이 그 속에 갖추어져서 사람이 되니, 이것이 바로 주자가 말한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생성할 때에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리 또한 부여한다”²²⁾라는 뜻이다. 결국 리와 기는 사람의 한 몸 안에 있으니, 一物이지 二物이라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구체적 현상에서 본질을 해석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18) 『朱熹集』卷46, 「答劉叔文」, “若在理上看, 則雖未有物, 而已有物之理. 然亦但有其理而已, 未嘗實有是物也.”

19) 『高峯集』, 「兩先生往復書」卷1, <答一齋書>, “相離則無物云五字, 誠不易之至論也. 然若於本體上未瑩, 則此五字, 亦何所著落也.”

20) 『일재집』, 「贈奇正字(大升)書」, “從這裏面深思明辨, 則庶見理氣之渾然一物耳.”

21) 『일재집』, 「贈奇正字(大升)書」, “且夫天人一理, 如人之知覺運動強弱清濁之氣充滿乎一身者, 陰陽之氣也; 又仁義禮智之類具在乎氣之中者, 太極之理也. 然則理與氣當在一身之內, 是可謂二物耶.”

22) 『中庸章句』, 第1章,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더 나아가 이항은 리가 형체에 부여된 이후의 ‘성’에 근거하여 리와 기가 一物임을 논증한다.

태극의 논의는 옛사람이 말하기를, 비록 오로지 리를 말하더라도 기가 그 가운데 있고, 비록 오로지 기를 말하더라도 리가 그 가운데 있다. 리와 기는 비록 二物이나 그 몸(덩어리)은 하나이니, 대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맹자는 오로지 성만을 말하였으나, 정자는 “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못하고(미비하고) 기만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못하니, <성과 기를>둘로 나누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자는 맹자가 미처 밝히지 못한 점을 확충하였다”라고 하였다.²³⁾

“오로지 리를 말하더라도 기가 그 가운데 있고, 오로지 기를 말하더라도 리가 그 가운데 있으니” 즉 리와 기는 一物이다. 주자의 말처럼, “리는 형이상의 도이고 사물을 낳는 근본이며, 기는 형이하의 그릇이고 사물을 낳는 도구로써”²⁴⁾ 비록 둘은 성질이 다르지만(二物) 항상 함께 있으니, 결국 그 몸은 하나이다(一體). 이 때문에 리와 기의 관계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리가 형체에 부여된 이후의 ‘성’ 역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기 속에 내재한다. 그럼에도 맹자는 오로지 성에만 주목하여 성선설을 주장하자, 이에 정자는 성과 기를 함께 말할 것을 강조한다. “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못하고, 기만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못하니, <성과 기를>둘로 나누면 옳지 않다.”²⁵⁾ 기 없는 성이 없고 성 없는 기가 없으니, 이미 성이 있으면 기가 있고 이미 기가 있으면 성 또한 기 속에 있다. 사람의 몸(형체) 속에 성이 내재되어 있으니 성과 기 역시 一物이다.

이러한 정자의 해석에 대해, 주자는 맹자가 미처 밝히지 못한 것을 확충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전 성인들이 미처 밝히지 못한 것을 확충하여 성인의 문하에 공이 있는 것이니, 정자의 말씀이 참으로 옳다.”²⁶⁾ 이처럼 이항은 “리와 기가 비록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분이 있지만, 태극과 음양은 上下·精粗가 원융하여 틈이 없어 한 몸이 된다.”²⁷⁾ 즉 리와 기가 一物임을 강조한다.

(2) 김인후와 이구 비판

또한 이항은 김인후의 “道(리)와 器(기)의 구분에 경계가 없을 수 없으니, 태극과 음양은 아마도 一物이라 할 수 없다”²⁸⁾라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23) 『일재집』, 「答奇正字書」, “太極之論, 古人云, 雖專言理而氣在其中, 雖專言氣而理在其中. 理氣雖二物, 而其體則一也, 蓋一而二, 二而一者也. 孟子有專言性, 而程子曰, 論性不論氣則不備, 論氣不論性則不明, 二之則不是. 釋之者曰, 程子擴孟子之未發也.”

24) 『朱熹集』卷58, 「答黃道夫」, “理也者, 形而上之道也, 生物之本也; 氣也者, 形而下之器也, 生物之具也.”

25) 『孟子集註』, 「告子(上)」, “程子曰, 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二之則不是.”

26) 『孟子集註』, 「滕文公(上)」, “其所以擴前聖之未發, 而有功於聖人之門, 程子之言信矣.”

27) 『일재집』, 「贈奇正字(大升)書」, “蓋道器雖有上下之分, 然其太極兩儀, 上下精粗, 圓融無際而爲一體者也.”

28) 『河西全集』卷11, 「與一齋書」, “道器之分, 不能無界限, 則太極陰陽, 恐不可謂一物也.”

대개 리와 기는 비록 경계(界分)가 있더라도 여전히 혼연한 一物일 뿐이다. 경계로 말하면, 다만 리와 기에 경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태극의 리에도 경계가 있다. 태극의 도는 다른 사물의 이치가 아니라 바로 원·형·이·정이 이것이다. 元의 리가 있고, 亨의 리가 있으며, 利의 리가 있고, 貞의 리가 있으니, 이 네 가지 덕에도 경계가 있으니, 이것을 二物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리와 기가 비록 경계가 있더라도 또한 二物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²⁹⁾

리와 기는 비록 형이상과 형이하의 경계(구분)가 있지만, 여전히 혼연한 一物이다. 주자의 말처럼, “이미 리가 있으면 바로 기가 있고, 이미 기가 있으면 리 또한 기 속에 있기 때문이다.”³⁰⁾ 또한 이러한 경계는 리와 기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 자체에도 경계가 있다. 예컨대 천지의 四德인 원·형·이·정의 경우에도 각각 元의 리, 亨의 리, 利의 리, 貞의 리로 구분되니, 元은 만물이 시작하는 것이고, 亨은 만물이 성장하는 것이며, 利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貞은 만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의 사덕인 인·의·예·지 역시 마찬가지니, 仁은 사랑의 리이고, 義는 정의의 리이며, 禮는 공경의 리이고, 智는 지혜의 리이다.

이처럼 태극 자체에도 元의 리, 亨의 리, 利의 리, 貞의 리처럼 경계가 있으니, ‘경계’로써 리와 기를 二物로 보는 증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리와 기가 비록 형이상과 형이하의 경계가 있지만 二物이라 말할 수 없다.

이에 김인후는 리와 기가 二物임을 주자의 사람과 말의 비유에 근거지어 주장하자, 이항은 그 비유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한다.

보내온 편지에서 또 말하기를, “주자가 ‘태극이 음양을 타는 것은 사람이 말을 타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결코 사람을 말이라 할 수는 없다”³¹⁾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자가 사물을 빌려 ‘리가 기를 타고 있는 것’을 형용한 것이지, 진짜 사람과 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말은 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 말을 얻으면 타는 것이고, 말을 얻지 못하면 걸어가는 것이다. 대저 리와 기도 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가. 리가 기를 얻으면 타는 것이고, 기를 얻지 못하면 걸어가는 것인가. 이것은 그렇지 않다. 주자가 물건을 빌려 비유한 일을 그대는 진실로 지나치게 믿고서 리와 기를 너무 심하게 구분하여 사람과 말이 다른 것과 같으니, 이는 이른바 “『서경』을 모두 믿는다면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³²⁾

주자에 따르면, “태극은 리이고 동정은 기이다. 기가 가면 리도 가니, 둘은 항상 서로 의지하여 일찍이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 태극은 사람과 같고 동정은 말과 같다. 말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고, 사람은 말에 타는 것이다. 말이 한번 나가고 들어오면 사람도 그

29) 『일재집』, 「答湛齋書」, “蓋理氣雖有界分, 而乃渾然一物耳. 以界分言之, 則非徒理氣有界分而已, 抑亦太極之理, 有界分焉. 太極之道, 非他物理, 乃元亨利貞是也. 有元之理, 有亨之理, 有利之理, 有貞之理, 於此四德, 亦有界分焉, 是可謂二物乎. 然則理氣雖有界分, 亦可謂二物乎.”

30) 『朱子語類』卷94, “既有理, 便有氣, 既有氣, 則理又在乎氣之中.”

31) 『河西全集』卷11, 「與一齋書」, “朱子曰, 太極之乘陰陽, 如人之乘馬, 則決不可以人爲馬也.”

32) 『일재집』, 「答湛齋書」, “來書又云, 朱子曰, 太極之乘陰陽, 如人之乘馬, 則決不可以人爲馬也. 蓋此則朱子借物, 形容理乘氣也, 非真人馬然也. 人馬則或乘或離, 得馬則乘, 不得馬則徒行. 夫理氣, 亦或乘或離耶. 理得氣則乘, 不得氣則徒行耶. 是不然. 朱子假物比喻之事, 君實過聽, 分理氣太甚, 而如人馬之不同, 此所謂盡信書, 不如無書.”

와 더불어 한번 나가고 들어온다.”³³⁾ 여기에서 주자는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一物임을 사람이 말을 타는 것에 비유한다. 리가 기와 함께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자의 취지와 달리,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사람이 말을 탈 경우, 사람은 말을 부리는 존재이고 말은 사람을 태우는 존재이다. 이로써 사람과 말은 그 성질이 분명히 구분된다. 이에 김인후는 “결코 사람을 말이라 할 수 없다”, 즉 부리는 사람과 태우는 말이 분명히 구분되듯이, 리와 기 역시 一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항이 보기에, 주자의 말은 어디까지나 ‘리가 기를 타고 있는 것’(리와 기가 함께 있는 것)을 형용한 것이지, “진짜로 사람과 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은 말을 타고 말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말은 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 예컨대 사람이 말을 얻으면 타지만 말을 얻지 못하면 걸어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와 기는 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니, 예컨대 리가 기를 얻으면 타지만 기를 얻지 못하면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리와 기의 관계를 사람과 말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주자가 말한 사람과 말의 비유를 지나치게 믿고서 리와 기를 너무 심하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서경』을 모두 믿는다면,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³⁴⁾라는 뜻이다. 『서경』의 내용에도 실제보다 지나친 것이 있으니, 만약 그 내용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도리어 뜻에 해가 되니, 차라리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 결국 주자의 비유를 끝이곧대로 믿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김인후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리(道)와 기(器)에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분이 있다는 것으로 태극과 음양을 二物로 여기니, 탄식할 일이다.”³⁵⁾

리와 기는 고요하면 모두 고요하고 움직이면 모두 움직이니, 그 체와 용이 저절로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다. 옛사람이 배우는 자를 위하여 <리와 기를>분리하여 말하였지만, 그 몸은 하나이다. 나누어 말하면 둘이 되고 합하여 말하면 하나가 되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니 精粗·本末에 피차의 <분별이>없다”는 것이다. 이 설을 주장한 자는 태극의 도를 알 것이다.³⁶⁾

리와 기는 잠시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으니 “리와 기는 고요하면 모두 고요하고, 움직이면 모두 움직인다.” 다만 리는 형이상의 도로써 만물을 낳는 근본이며, 기는 형이하의 그릇으로써 만물을 낳는 도구이니, 둘의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리와 기는 나누어 말하면 둘이 되고 합하여 말하면 하나가 되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배우는 자를 위하여 리와 기를 구분지어 말하였지만, 실제로 “그 몸은

33) 『朱子語類』卷94, “太極理也, 動靜氣也. 氣行則理亦行, 二者常相依而未嘗相離也. 太極猶人, 動靜猶馬. 馬所以載人, 人所以乘馬. 馬之一出一入, 人亦與之一出一入.”

34) 『孟子』, 「盡心(下)」, “孟子曰, 盡信書, 則不如無書.”

35) 『일재집』, 「答湛齋書」, “君亦狃而以道器之有上下爲二物, 可歎.”

36) 『일재집』, 「答湛齋書」, “蓋理氣靜則俱靜, 動則俱動, 其體其用, 自無頃刻之離矣. 古人爲學者, 離分而言之, 其體則一也. 分言之則爲二, 合言之則爲一, 蓋一而二, 二而一者也. 古人云, 陰陽一太極, 精粗本末無彼此也. 爲斯說者, 其知太極之道乎.”

하나이니” 一物이다.

이처럼 리와 기는 그 성질이 구분되지만 실체는 一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자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니 精粗・本末에 피차의 <분별이> 없다.”³⁷⁾ 즉 음양 속에 하나의 태극이 있으니, 둘 사이에는 조금의 간격이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항의 종실(종친) 이구³⁸⁾가 리와 기가 二物임을 주장하자,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리와 기가 한 덩어리(一體)이 되는 것을 숙옥(이구)은 옳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 밖에 리가 있는가. 만약 기 밖에 리가 있다면 천지간에 리 한 덩어리가 있고 또 기 한 덩어리가 있어서 두 덩어리가 각각 존재하는 것인가. 道體를 막 알면, 리가 기 가운데 존재함을 거의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도 리 한 덩어리와 기 한 덩어리가 있어서 두 덩어리가 각각 존재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더욱 알 수 있다.³⁹⁾

이구의 말처럼 리와 기가 二物이라면(一體가 아니라면), 결국 기 밖에 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리가 기 밖에 있다면, 이때는 리와 기가 분리되어 천지간에는 ‘리 한 덩어리’와 ‘기 한 덩어리’, 즉 두 덩어리가 각각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리는 항상 기 속에 있으니, ‘리 한 덩어리’와 ‘기 한 덩어리’는 결코 각각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도 심장(기) 속에 성(리)이 내재되어 있으니, 사람의 마음 역시 ‘리 한 덩어리’와 ‘기 한 덩어리’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리와 기가 한 덩어리(一體)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이항이 비록 리와 기의 一物을 말하지만, 그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

무릇 음양은 消長이 있으나 리는 그렇지 않다. <리가> 비록 음양의 속에 꼭 맞게 들어있으나, <음양의> 淸濁으로 밝거나 어둡지 않으며, <음양의> 消長으로 줄거나 늘지 않는다. 뒤섞여 있으며(혼륜) 널리 퍼져있어 만고에 이르도록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자는 ‘음양과 섞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리와 기가 서로 떨어져서 섞이지 않음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자는 또 ‘음양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리와 기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또한 섞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글자만 바꾸어 놓았는데 리와 기가 분명해지고 또 하나가 되니, 지극하도다! 말씀이여. 도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⁴⁰⁾

리와 기는 그 성질이 분명히 구분되니 “음양은 消長이 있으나 리는 그렇지 않다.” 기는 없어지기도 생기는 변화무쌍한 물질인 반면, 리는 영원불변하는 원리・이치이다. 리

37) 『太極圖解』, “陰陽一太極, 精粗本末無彼此也.”

38) 李球(1494~1573)의 본관은全州이고 자는 叔玉, 호는 蓮坊이다. 화담(서경덕)의 문인이다. 氣一元論의 관점에서 퇴계(이항)의 理氣二元論을 반박하고, 心無體用說을 지어 이항과 논변을 벌이기도 하였다. (『退溪集』卷41, 「心無體用辯」 참조.)

39) 『일재집』, 「答許參議(曄)書」, “理氣所以爲一體者, 叔玉以爲不可. 然則氣外有理耶. 若氣外有理, 則天地之間, 有理一體, 又有氣一體, 兩體各存焉歟. 蓋纔知道體, 則理之存乎氣中, 庶可知矣. 人之方寸之間, 亦有理一體氣一體, 兩體各存焉歟. 於此尤可知矣.”

40) 『일재집』, 「理氣說」, “夫陰陽有消長, 而理則不然. 雖炤然在乎陰陽之中, 而不以淸濁而爲明暗, 不以消長而爲損益. 渾圓旁薄, 亘萬古而不易, 故朱子曰, 不雜乎陰陽, 非謂理氣相離而不雜也, 故朱子又曰, 不離乎陰陽. 於此可見其理氣常不離, 而亦不雜也. 一字之轉換, 理氣分明, 而又成一, 至哉言乎. 非知道者, 誰能識之.”

와 기는 형이상의 원리와 형이하의 물질로 두 성질이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므로 ‘리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不相雜)’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음양의 속에 꼭 맞게 들어있다.” 리는 기 속에 존재하니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不相離)’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항은 리와 기의 ‘불상잡’과 ‘불상리’라는 두 관점을 동시에 인정한다.

또한 리가 비록 기 속(기의 영향 속)에 있더라도 그 본질은 훼손되지 않으니 “淸濁으로 밝거나 어둡지 않으며, 消長으로 줄거나 늘지 않는다.” 즉 기의 淸濁에 따라 리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기의 消長에 따라 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리가 기 속에 내재하지만, 기가 淸濁·消長하더라도 그 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리가 내재되어 있으니, 탁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탁한 기질을 제거하면 온전한 성(리)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주자는 리와 기가 二物이라는 의미에서 ‘음양과 섞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한 리와 기가 一物이라는 의미에서 ‘음양과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항은 리와 기의 ‘불상리’와 ‘불상잡’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항은 리와 기가 二物이라는 ‘불상잡’보다 리와 기가 一物이라는 ‘불상리’를 더 중시하는데, 이것은 무인 출신답게 현실적 기반 위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3. 일재 이항의 심성론

(1) 심과 성은 一物이다: 심이 성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항은 리와 기가 一物이듯이, 심과 성 역시 一物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러한 심과 성의 관계는 ‘심이 먼저인가 성이 먼저인가’라는 논변으로 전개되는데, 이에 대해 이항은 심이 성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심과 성, 동과 정을 선후로 논할 경우, 바깥 사물이 오면 심이 참으로 먼저 움직인다. 주자가 말하기를, “성대히 사단이 감응(느낌)에 따라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해석한 자가 말하기를, “‘감응한다’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나타난다’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감응한다’는 것은 심이 감응한 것이고, ‘나타난다’는 것은 성이 발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심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다.⁴¹⁾

이 글은 허엽⁴²⁾에게 답한 편지의 내용이다. 심과 성은 一物이다. 그럼에도 선후를 논하면, 심이 성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항은 그 이유를 주자의 말에 근거지어 설명한다.

41) 『일재집』, 「答許參議書」, “以心性動靜之先後論之, 外物之來, 心固先動矣. 朱子曰, 藹然四端, 隨感而見. 釋之者曰, 感者, 自外而動於內也; 見者, 自內而形於外也. 蓋感者, 心感也; 見者, 性發也. 由此而觀之, 心先動明矣.”

42) 許曄의 본관은 陽川, 자는 太輝, 호는 草堂이다. 이언적을 사숙하고 서경덕의 문인이다. 노수신(盧守愼).이준경(李浚慶).심희수(沈喜壽) 등과 교류하였으며, 특히 노수신과 가깝게 지냈다. 동서 분당 때 東人의 종주가 되어 의론을 엄격하게 하였다고 한다.

주자에 따르면, “성대히 사단이 감응에 따라 나타난다.”⁴³⁾ 사단이라는 정은 바깥 사물에 의해 심의 감응이 있어야(예컨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아야) 심속에 갇추어져 있는 성이 발하여 정으로 나타난다.

또한 요씨(饒魯)⁴⁴⁾에 따르면, “‘감응한다’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나타난다’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⁴⁵⁾ 먼저 심이 바깥 사물에 감응해야 안에 갇추어져 있던 성이 움직이고, <그런 후에>안에 갇추어져 있던 성이 발하여 밖(사단)으로 나타난다. 결국 ‘감응한다’는 것은 심이 감응한 것이고 ‘나타난다’는 것은 성이 발한 것이니, 심이 정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다.

이어서 이항은 ‘심이 정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릇 눈이 보고 귀가 듣지만, 보고 듣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다. 맹자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보는 것’은 감응하는 것이고, ‘측은한 것’은 성이 발한 것이다. 만일 맹인이 우물 옆에 있다면, 비록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측은한 정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맹인도 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이 사물에 따라 바로 감응할 수 없어 비록 측은한 단서가 있더라도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심이 <정보다>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⁶⁾

눈과 귀가 보고 듣지만, 이때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은 심이다. 그러므로 눈과 귀가 보고 들으면 심이 감응한다. 이항은 이것을 맹자의 말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맹자에 따르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⁴⁷⁾ 이때 우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를 보는 것은 심이 감응한 것이고, 측은한 마음(정)이 생기는 것은 성이 발한 것이다. 결국 먼저 심이 감응해야, 그런 후에 심속에 갇추어져 있던 성이 발하여 측은한 정으로 드러난다.

만약 우물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다면, 비록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더라도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맹인에게도 性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직접 보지 못하면 심이 감응하지 못하고, 심이 감응하지 못하면 비록 맹인에게 측은한 단서가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심이 정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심이 성과 정을 통솔한다(心統性情)’는 뜻이라고 강조한다.⁴⁸⁾

그러나 심과 성의 선후문제에 대해, 이항은 ‘심과 성은 선후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는

43) 『小學集註』, 「小學題辭」, “藹然四端, 隨感而見.”

44) 饒氏는 남송의 성리학자 饒魯를 말한다. 자는 伯興. 仲元이고 호는 雙峯이며, 시호는 文元이다. 주자의 문인 黃榦의 제자이며, 저서로는 『饒雙峯講義』가 있다.

45) 『小學集註』, 「小學題辭」, “感者, 自外而動於內也; 見者, 自內而形於外也.”

46) 『일재집』, 「答許參議書」, “夫耳目之視聽, 所以視聽者即其心也. 孟子曰, 見孺子入井, 而有怵惕惻隱之心. 見則感也, 惻隱則性發也. 設使瞽者在井側, 雖孺子入井, 必不(又)有惻隱之情. 是瞽者非無(無非)性情, 而目無見焉, 故心不能遇物即感, 雖有惻隱之端, 無自以見矣. 於此亦見其心先動也.”(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에는 不자가 又자로 되어 있는데, 오자인 듯하다.)

47) 『孟子』, 「公孫丑(上)」, “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48) 『일재집』, 「答許參議書」, “不然, 何以曰心統性情.”(그렇지 않으면 어찌 ‘심통성정’이라 하겠는가.)

입장이다. 이항에 따르면, “대개 성은 사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심속에 갖추어진 이치일 뿐이다. 성이 심에 갖추어져 있으나 스스로 발하거나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그것을 주재·운용하는 것은 실제로 심에 있다. <성은>심을 기다려서 발하기 때문에 ‘성이 먼저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고, <심은>성에 연유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심이 먼저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다.”⁴⁹⁾ “심은 성이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이 먼저 움직인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성은 심이 아니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성이 먼저 움직인다’고 할 수 없다.”⁵⁰⁾ 따라서 심과 성의 관계는 심이 먼저라거나 성이 먼저라는 선후관계로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항은 “일재의 이 말(성이 먼저 움직이거나 심이 먼저 움직인다)은 다른 말에 비해 조금 세밀하지만, 그 선후를 나눌 수 없는 곳에서는 그가 간파하지 못했다”⁵¹⁾라고 비판한다.

이에 이항은 예나 지금의 학자들은 이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여 혹 ‘성이 심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이 발하여 정이 되고 심이 발하여 意가 된다’는 주장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⁵²⁾ 性發爲情과 心發爲意와 같은 말 때문에 성이 먼저라거나 심이 먼저라는 주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이항은 明德의 해석에 근거하여 ‘심이 성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논증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虛靈不昧(텅 비어 신령하고 어둡지 않아)하여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그것을 해석한 자가 말하기를, “허령불매한 것은 심이고,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은 정이다”라고 하였다.……심의 신령한 감응이 아니면 衆理를 갖추기 어려워서 반드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도 ‘심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³⁾

『대학』의 ‘명덕’에 대한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虛靈不昧하여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⁵⁴⁾ 이 구절에 대해 주자가 또 해석하기를, “허령불매한 것은 심이고, 이 리가 심속에 갖추어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이며,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인 것이 정이다.”⁵⁵⁾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은 인·의·예·지의 성이다. 허령불매한 심이 이 성을 갖추고 있다가 사물에 감응하여 정으로 드러난다. 결국 먼저 허령불매한 심이 있어야 <심속에>중리를 갖추고서 만

49) 『退溪集』卷29, 「答金而精」, “蓋性非有物, 只是心中所具之理. 性具於心, 而不能自發而自做, 其主宰運用, 實在於心. 以其待心而發故, 不可謂性先動也; 以其由性而動故, 不可謂心先動也.”

50) 『退溪集』卷29, 「答金而精(別紙)」, “心非性, 無因而爲動, 故不可謂心先動也; 性非心, 不能以自動, 故不可謂性先動也.”

51) 『일재집』附錄, 「遺事」, “一齋此說(性先動心先動), 比他說稍細, 然其不可分先後處, 他未能見破耳.”

52) 『일재집』, 「答許參議書」, “古今學者不達此理, 或謂性先動於心, 此必狃於以性發而爲情, 心發而爲意爲主(王)而差了.”(여기에서 王은 주자의 오자인 듯하다.)

53) 『일재집』, 「答許參議書」, “朱子曰, 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又釋之者曰, 虛靈不昧, 心也; 具衆理應萬事, 情也.……非心之靈感, 則難具衆理而必不見矣. 於此亦見其心先動也.”

54) 『大學章句』, 第1章, “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55) 『大學章句大全』, 第1章, “朱子曰, 虛靈不昧, 便是心; 此理具足於中, 無少欠闕, 便是性; 隨感而動, 便是情.”(또는 『朱子語類』卷5, “虛明不昧, 便是心; 此理具足於中, 無少欠闕, 便是性; 感物而動, 便是情. 橫渠說得好……此是總說.” 횡거의 말(心統性情)이 좋으니, 이는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

사에 응할 수 있다. 만약 허령불매한 심이 없으면, 중리(성)를 갖추지 못하므로 만사에 응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심이 성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항은 ‘심이 성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로써 기가 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심이 먼저 움직인다’는 논변은, 대개 하늘과 사람이 하나의 이치이니, 천도의 원·형·이·정과 인성의 인·의·예·지는 모두 기가 먼저 움직이고 리가 또한 유행한다. 이 때문에 주자는 “기로써 형태를 이루고 리가 또한 부여된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또한 ‘기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⁶⁾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는 하나이니, 천도에 원·형·이·정이 있듯이 인성에는 인·의·예·지가 있다. 이때 천도의 원·형·이·정과 인성의 인·의·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리이다. 이러한 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기에 의지하여 유행하니 “기가 먼저 움직이고 리가 또한 유행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氣先理後의 사고이다.

또한 이항은 ‘기선이후’의 관점을 주자의 말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주자에 따르면,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생성할 때에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리 또한 부여한다.”⁵⁷⁾ 먼저 기로써 형체가 이루어지면 또한 <그 형체에>리가 부여되니, ‘기가 리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가 리보다 먼저 움직이듯이, 심이 성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것은 이항이 리나 성과 같은 추상적·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 기와 심과 같은 구체적·실재적인 것에 기초하여 이기론과 심성론을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이항의 이기관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氣先理後의 입장이니, 理氣無先後의 주장 역시 재고되어야 할 듯하다.⁵⁸⁾

(2) 인심도심설: 노수신과 나훔순 비판

이항의 인심도심설은 나훔순의 이론을 옹호하는 노수신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된다.

인심과 도심은 모두 리와 기가 마음속에서 상호 발한 것으로 公·私의 기미 때에 妙用한 것이다. 요순처럼 태어나면서 아는(生知) 성인이 아니라면, 비록 가장 지혜로운 우임금(大禹)의 자질이라도 여기서 공부를 착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임금이 惟精惟一로서 경계한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더욱 ‘유정유일’ 네 글자를 사색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다시 천리를 회복하는 공부이다.⁵⁹⁾

56) 『일재집』, 「答許參議書」, “示心先動之卞, 蓋天人一理, 天道之元亨利貞, 人性之仁義禮智, 皆氣先動而理亦行焉. 是以朱子曰, 氣以成形而理亦賦焉, 於此亦可見其氣先動也.”

57) 『中庸章句』, 第1章,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58) 김범수는 그의 「일재 이항의 이기론에 대한 후학들의 오해」(『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4)에서 이항의 이기론을 理氣無先後로 해석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氣先理後가 더 타당하다.

59) 『일재집』, 「與盧寡悔(守愼)書」, “且人心道心, 皆是理氣之交發於方寸之間, 而公私幾微之妙用也. 非堯舜生知之聖, 雖大禹上智之資, 未免這裏下工夫, 故舜以惟精惟一戒之. 君須更思惟精惟一四字, 此便是克去己私, 復還天理之功也.”

이 글은 1516년에 노수신⁶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먼저 이항은 인심과 도심을 리/기와 公/私의 관계로 해석한다. “인심과 도심은 모두 리와 기가 마음속에서 상호 발한 것으로 公私(선악)의 기미 때에 妙用한 것이다.” 도심은 리가 발한 것이므로 공정한 것이고, 인심은 기가 발한 것이므로 사사로운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항이 ‘인심은 인욕의 근본이 된다’는데 근거하여 도심=理發=선, 인심=氣發=불선이라는 대립적 관계로 해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자 역시 도심과 인심을 或原或生の 대립적 관계로 해석하니, “인심과 도심이 다른 것은 혹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혹은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하기 때문이다.”⁶¹⁾

기(형기)에서 발한 인심은 사사롭기가 쉽고 공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항상 ‘위태롭고’, 리(성명)에서 발한 도심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므로 항상 ‘미약하다.’ 인심은 항상 위태롭기 때문에 오직 정밀하게 살피서 형기의 사사로움에 섞이지 않게 하고, 도심은 항상 미약하기 때문에 오직 한결같이 지켜서 의리의 올바름에 부합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위태로운 것이 안정되고 미약한 것이 드러나서 말과 행동이 저절로 잘못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이 중심을 잡아서 천리(성)를 회복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다시 천리(성)를 회복하는 공부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항은 “인심도심의 설은……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이와 같이 정밀하고 지극한 것은 있지 않다. 이것이 성학의 시원이자 도리의 근본이니,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⁶²⁾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배우지 않아도 아는>요순과 같은 성인이 아니라면, 비록 우임금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모두 인심·도심 상에서 공부를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천자의 자리를 전해주면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⁶³⁾고 경계한 것이다. 예컨대 우임금이 자신의 위태로운 인심과 미약한 도심을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서 이항은 인심/기발=私와 도심/이발=公의 대립적 관점에서 나훔순의 이론을 비판한다.

정암(나훔순)⁶⁴⁾이 말하기를 “도심은 體이니 지극히 고요한 본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은미하다(微)’고 하고, 인심은 用이니 지극히 변화하는 작용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위태하다(危)’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用으로써 體를 삼고 動으로써 靜을 삼은 것이니 참으로 가소롭다. ‘도심’ 두 글자는 도를 아는 자가 보게 하면 변론할 필요도 없이 리의 작용임을 알 수 있

60) 盧守愼(1515~1590)의 본관은 光州. 자는 寡悔, 호는 蘇齋. 시호는 文簡. 경상도 상주 출신이다. 이언적에게 배우고, 이항·김인후 등과도 친분이 있으며, 도심/未發과 인심/已發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소재집』이 있다.

61) 『中庸章句』序, “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62) 『일재집』, 「答許參議書」, “夫人心道心之說……自天開地闢以來, 未有若是其精且至矣. 此聖學之祖, 道理之根本也, 於斯不通, 則其餘不足觀也.”

63) 『書經』,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64) 羅欽順(1465~1547)은 중국 명나라 때의 학자이다. 자는 允升, 호는 整菴, 시호는 文莊이다. 주자학을 지지하면서 氣一元論을 주장한다. 저서로는 『困知記』, 『整菴存稿』가 있다.

다. 무릇 ‘도’의 글자 뜻은 발동한 리이다. 자사께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고 하였으니, 성은 체이고 도는 용이다. 정암의 ‘도심은 體이고 인심은 用이다’는 설은 요·순·우의 도를 전한 심법이 정정의 기미 때에 묘용하는 공부처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라는 한 글자의 뜻조차 알지 못한 것이다. 대저 인심과 도심의 가르침은 이 도의 근원이자 성학의 시원이다. 여기에서 통달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우리 동방 도학의 전수가 오직 그대를 의지하는데, 그대마저 정암의 궤변에 현혹되어 시비를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럽다.⁶⁵⁾

나흠순은 도심과 인심을 체/용, 정/동, 성/정의 관계로 해석한다. “도심은 性이고 인심은 情이다. 심은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동과 정, 체와 용을 분별하기 위함이다.”⁶⁶⁾ “도심은 성이니 성은 도의 본체이며, 인심은 정이니 정은 도의 작용이다.”⁶⁷⁾ 따라서 도심은 심의 본체로써 지극히 고요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은미하고’, 인심은 심의 작용으로써 지극히 변화하여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위태롭다.’ 결국 도심=體=性=靜=未發, 인심=用=情=動=已發로 구분하니, 도심은 본체의 의미이지 현실의 의식활동이 아니다. 이것은 주자가 도심과 인심을 모두 심이 발동한 이후의 두 양상으로 해석하는 것과 구분된다.

이항은 이러한 나흠순의 해석을 비판하니 “이것은 用으로써 體를 삼고 動으로써 靜을 삼은 것이니 참으로 가소롭다.” 나흠순이 도심은 심의 用인데 심의 體로 해석하고, 또한 도심은 심의 動한 것인데 심의 靜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니 잘못이다. 도심은 性·體·靜과 같은 본체의 의미가 아니라 ‘발동한 리이다.’ 이 때문에 이항은 “도심 두 글자는 도를 아는 자가 보면 변론할 필요도 없이 리의 작용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항은 도심의 ‘도’자가 리의 작용임을 자사의 말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자사께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⁶⁸⁾라고 하였으니, 성은 체이고 도는 용이다.” 자사의 말에 근거하더라도, 도심의 ‘도’자는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따르는 것, 즉 리의 작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심을 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때문에 이항은 나흠순이 “‘도’라는 글자의 뜻조차 알지 못하였다”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항은 나흠순의 ‘도심은 體이고 인심은 用이다’는 설은 “요·순·우의 도를 전한 心法이 성·정의 기미 때에 妙用하는 공부처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비판한다. 심이 작용하여 성이 정으로 막 드러나는 그 시점(또는 선과 악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幾微인데, 이 기미의 순간을 잘 살펴서 사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공적인 천리

65) 『일재집』, 「與盧寡悔(守愼)書」, “整菴曰, 道心, 體也, 至靜之體不可見, 故曰微; 人心, 用也, 至變之用不可測, 故曰危. 此以用爲體, 以動爲靜, 誠可笑也. 夫道心二字, 使見道者觀之, 則不待辨論, 而可知其爲理之用也. 凡道字義, 皆是發動底理也. 子思子曰,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蓋性則體也, 道則用也. 整菴之道心體也人心用也之說, 非徒不識堯舜禹傳道心法, 性情幾微妙用下功之地, 亦不知道之一字義也. 夫人心道心之教, 此道之大原而聖學之祖也. 於斯未達, 則其餘不足觀也. 吾東方道學之傳, 專恃吾君, 君亦惑於整菴之詭論, 莫知是非, 可勝嘆哉.”(나흠순의 『困知記』에는 靜이 精으로 되어 있다.)

66) 『困知記』卷(상), 제5장, “道心, 性也; 人心, 情也. 心一也, 而兩言之者, 動靜之分體用之別也.”

67) 『困知記』卷(하), 제133장, “道心性也, 性者道之體; 人心情也, 情者道之用.”

68) 『中庸』, 第1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도심과 인심 모두 리가 발동한 이후의 마음이니,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기미의 순간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온갖 욕망이 몰려와도 절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심이라도 인심과 마찬가지로 ‘정밀히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나흠순은 도심을 공부가 필요없는 성의 차원으로 해석하니, 이 때문에 이항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한 심법이 성·정의 기미 때에 묘용한 공부처임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인심과 도심의 가르침은 도의 근원이자 성학의 시초이니, 인심과 도심의 뜻에 통달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도학이 노수신에 의지하니, 무엇보다 인심도심의 가르침에서 노수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노수신마저 나흠순의 입장에 동조하여 ‘도심은 체(성)이고 인심은 용(정)이다’는 내용의 「人心道心辨」(1559)을 저술하고 이듬해 나흠순의 학문을 칭송하는 「困知記跋」(1560)을 저술하자, 이항은 노수신이 “나흠순의 궤변에 현혹되어 그 시비를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항은 도심 역시 수양공부가 필요한 대상임을 강조한다.

무릇 요임금과 순임금은 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으로써 의도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도를>전수할 때는 다만 ‘진실로 그 中을 잡아라(允執厥中)’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임금은 본성을 회복한 성인으로써 조금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수할 때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진실로 그 中을 잡으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대개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는(惟精惟一)’ 약간의 공부가 있어야 비로소 ‘진실로 그 中을 잡는다(允執厥中).’⁶⁹⁾

인심과 도심이라는 말은 『서경』 「대우모」에 나온다. 이 말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천자의 자리를 전해주면서 당부한 말이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진실로 그 中을 잡아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⁷⁰⁾ 이 내용에서 ‘진실로 그 中을 잡아라(允執厥中)’는 말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할 때는 ‘允執厥中’ 한 구절뿐이었지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할 때는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의 세 구절을 더 추가한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이항은 그 이유를 ‘본성대로 한 자’와 ‘본성을 회복한 자’의 차이로서 설명한다. 요임금·순임금은 수양을 빌리지 않고 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이나, 우임금은 수양하여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성인에 이른 자이다. “요·순은 본성대로 한 자이고, 탕·무는 그것을 회복한 자이다.”⁷¹⁾ 또한 呂大臨에 따르면, “의도함이 없이 편안히 행하는 것은 본성대로 한 것이고, 의도함이 있어도 이롭게 여겨서 행하여 의도함이 없는 데에 이르는 것은 본성을 회복한 것이다.”⁷²⁾ 요임금·순임금이 아무런 의도나 기미가 없는 것과 달리, 우임

69) 『일재집』, 「與盧君書」, “夫堯舜生知之聖, 無意幾, 故堯之授舜, 只以允執厥中. 而禹反之之聖, 些小有幾, 故舜之授禹, 以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蓋惟精惟一, 此是有些下工夫, 而乃允執厥中也.”

70) 『書經』,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71) 『孟子』, 「盡心(下)」, “孟子曰, 堯舜, 性者也; 湯武, 反之也.”

금은 조금의 기미가 있으므로 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요임금·순임금이 수양공부가 필요하지 않으나, 우임금은 수양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도(심법)를 전수할 때와 달리,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도를 전수할 때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히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야 한다(人心惟微, 道心惟危, 惟精惟一)’는 경계의 말을 추가한 것이다. 결국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배우지 않고도 아는 성인과 달리, 우임금은 위태로운 인심과 미약한 도심의 두 마음을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는 공부’가 있어야 비로소 ‘그 中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도심 역시 공부가 필요하니, 나흠순처럼 도심을 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항은 나흠순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또 정암이 말하기를, “도심은 寂然不動한 것이니, 지극히 고요한 본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은미하다(微)’고 한다”고 하였다. 대개 ‘적연부동’이라는 것은 심의 본체이다. 고요하기가 마치 太虛와 같다면, 비록 귀신이라도 그 사이를 엿볼 수 없는 것이니, 어찌 微자를 쓰겠는가. ‘미’는 動의 微이다. 『중용』에서 말한 “숨은 것(隱)보다 <잘>나타나는 것은 없고, 미세한 것(微)보다 <잘>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것의 微이다.⁷³⁾

나흠순은 도심과 인심을 ‘적연부동’과 ‘감이수통’의 관계로도 해석한다. “도심은 寂然不動한 것이니 지극히 정미한 본체는 볼 수 없으므로 은미하고, 인심은 感而遂通한 것이니 지극히 변화하는 작용은 헤아릴 수 없으므로 위태롭다.”⁷⁴⁾ 나흠순의 말처럼, ‘적연부동’은 심의 본체로써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이때는 태허처럼 지극히 고요하므로 비록 귀신이라도 그 사이를 엿볼 수 없으니, 은미하다는 뜻의 ‘微’자를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미’자는 지극히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動의 微이다” 즉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항은 이것을 『중용』의 ‘微’자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숨은 것보다 <잘>나타나는 것은 없고, 미세한 것보다 <잘>드러나는 것은 없다.”⁷⁵⁾ 여기에서 ‘미세한 것(微)’은 ‘숨은 것(隱)’과 같은 의미로서 다만 겉으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극히 고요한 본체로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흠순이 ‘道心惟微’의 微자를 ‘적연부동’과 연결시켜 본체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처럼 인심과 마찬가지로, 도심 역시 심이 발동한 이후의 상태이다. “그대가 모름지기 더욱 사색하면, ‘도심’ 두 글자가 발동의 뜻임이 분명해질 것이다.”⁷⁶⁾ 심이 발동하여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그 기미의 순간에 ‘<인심은>정밀하게 살피고 <도심은>한결같이

72) 『孟子集註』, 「盡心(下)」, “呂氏曰, 無意而安行, 性者也; 有意利行而至於無意, 復性者也.”

73) 『일재집』, 「與盧寡悔書」, “且夫整菴曰, 道心, 寂然不動者也, 至靜之體不可見, 故曰微. 蓋寂然不動者, 心之體. 靜如太虛, 雖鬼神, 不得窺其際者, 安用下微字乎. 微者, 動之微. 中庸所謂莫見乎隱, 莫顯乎微之微也.”

74) 『困知記』卷(상), 제4장, “道心, 寂然不動者也, 至精之體不可見, 故微. 人心, 感而遂通者也, 至變之用不可測, 故危.”

75) 『中庸』, 第1章,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76) 『일재집』, 「與盧寡悔書」, “君須更思, 道心二字, 發動底意明矣.”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준 인심과 도심의 뜻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항은 “지금 사대부들이 『곤지기』의 허황된 설에 현혹되어 모두 쏠리듯 그를 따르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한탄스럽다”⁷⁷⁾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이항이 나흠순의 인심도심설을 통렬히 비판한 것으로 볼 때, <유명종과 최영성의 주장처럼>이항의 理氣一物說이 나흠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듯하다.⁷⁸⁾ 그의 理氣一物說은 나흠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무인출신답게 관념적·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성·객관성을 중시하는 그의 현실적 사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은 이기론과 심성론으로 구분된다. 첫째, 이항의 이기론은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리가 기 속에 내재하는) 一物임을 주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一物の 관점에서 리와 기를 형이상과 형이하의 二物로 구분하는 기대승·김인후·이구 등을 비판한다. 이항은 구체적 사물(현상) 속에서 리와 기를 논의하니, 그의 이기논변은 一物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一物을 벗어난 초월적·형이상학적 리의 실재성을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형이상과 형이하의 개념적 구분마저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 역시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분을 말하지만(一而二 二而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재가 아닌 논리적·이론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항은 리의 선재성(또는 실재성)을 인정하는 이황의 리 철학이나 太虛의 선재성을 인정하는 서경덕의 기 철학을 동시에 거부한다. 리 또는 기의 초월적·형이상학적 실재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경험적·감각적 현실의 차원에서 이 세계를 해석한다. 이것은 ‘기에서 리를 인식하는(就氣認理)’ 경험적 인식방법과 연결되니, 이것이 바로 그가 ‘사물에 나아가 리를 궁구한다(格物致知)’는 『대학』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자의 이기론이 본체계(불상잡)와 현상계(불상리)의 두 측면을 종합하는데 있다고 할 때, 이항의 一物적 사고는 현상계에 치중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항처럼 현상계에 치중할 경우, 一物 속에 내재하는 리로서는 주자학이 강조하는 도덕규범의 표준(선의 근거)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이것은 기대승의 비판처럼, 이기론의 범주를 본체계를 무시하고 현상계에 한정시킨(또는 축소시킨) 것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뿐만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평가가 냉혹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다른 학자들에 비해 기대승의 평가가 다소 넉넉했던 것은 기대승 역시 理氣一物の 관점에서 이황과 사단칠정논변을 전개하기 때문일 것이다.

77) 『일재집』, 「與盧君書」, “今之士大夫惑於困知記詭誕之說, 皆靡然從之而莫知(敢)是非, 可勝嘆哉.”(여기에서 敢자는 知자의 오자인 듯하다.)

78) 유명종과 최영성은 모두 이항의 ‘이기일물설’이 나흠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유명종은 “理氣渾然一物說이 나정암설과 무관하며 자가체득으로만 돌리는 것은 학술발전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한다.”(『한국유학연구』, 이문출판사, 1988, p.154) 최영성 역시 “그의 이기관을 보면 나흠순의 그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理氣一物說에 있어서 나흠순의 영향이 自在함을 알 수 있겠다.”(『한국유학사상사(Ⅱ)』, 아세아문화사, 1997, p.351)

둘째, 리와 기가 一物이듯이, 심과 성의 관계 역시 一物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리가 기 속에 존재하듯이, 성 역시 심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심과 성의 선후문제에서는 ‘심이 성보다 먼저 움직인다’, 즉 심이 먼저 감응해야 성이 정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심과 성이 一物이지만 심이 성보다 우선하듯이, 리와 기가 一物이지만 기가 리보다 우선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이항은 리와 기 또는 성과 심의 관계에서 모두 氣先理後의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항의 인심도심설은 나흠순의 이론에 동조하는 노수신을 비판하는데 있다. 나흠순처럼 도심을 性=靜=體와 같은 본체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심과 도심 모두 리가 발동한 이후의 심의 두 양상으로 해석한다. 때문에 심이 작용하여 성이 정으로 드러나는(또는 선과 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기미의 시점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이로써 인심뿐만 아니라 도심 역시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수한 인심과 도심의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심을 공부가 필요 없는 성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노수신과 나흠순을 비판한다.

이처럼 이항의 성리학은 철저히 一物적 사고 속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항의 성리학 역시 주자학의 개념과 범주 속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본체계를 소홀히 하고 현상계에 치중함으로써 철저히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이항 성리학의 특징이자 한계이다. 이러한 사고는 아마도 그가 무인출신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참고문헌>

『一齋集』, 『高峯集』, 『退溪集』, 『宋子大全』, 『農巖集』, 『朱子語類』, 『太極圖解』, 『朱熹集』, 『中庸章句』, 『孟子集註』, 『河西全集』, 『孟子』, 『小學集註』, 『大學章句』, 『書經』, 『困知記』, 『中庸』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1986

유명중, 『한국유학연구』, 이문출판사, 1988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1997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Ⅱ)』, 아세아문화사, 1997

김범수, 「일재 이항의 이기론에 대한 후학들의 오해」,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4

최영성, 「일재 이항의 학문에 대한 퇴계 이황의 평가-성리설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4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전병욱, 「소재 노수신의 인심도심 사상」, 『퇴계학논총』32,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이종근(한국문화 스토리 작가,
새전북신문 편집부국장)

1. 들어가는 말

태인의 경우 대표적 서원으로 무성서원(武城書院)과 남고서원(南阜書院) 등을 들 수 있으며,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1401~1481)과 더불어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이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명망이 높다. 특히 이항은 당시의 호남사림의 거유 기대승, 김인후, 노수신 등의 인물과 고유했고 그의 문하에 많은 제자를 키워내어 호남사림의 주요 학맥을 형성했다.

사상이 없는 예술이 어디 있으며, 훌륭한 사상이 탁월한 예술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고금의 이치다.

이기론은 조선시대 들어 논의가 활발해진다. 김익두 전북대 명예교수는 “조선 성리학의 학파는 만물의 존재 근원을 기(氣)로 보는 율곡 이이의 주기론(主氣論)과 이(理)로 보는 퇴계 이황의 주리론(主理論)으로 나뉜다”며 “일재 이항은 이와 기가 구체적인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했다”고 했다.

이항은 탁상이론을 배제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을 중시한 가운데 제자들을 주도면밀히 가르쳤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이후 이름난 업적을 이뤄낸다.

서예가이기도 한 류승훈 남고학당 훈장은 “수제자인 김천일 장군의 건재(健齋)라는 호에는 일재 선생의 실천유학을 본받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 팔도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며 대의명분을 세웠다”고 전한다.

김천일이 나주에서 의병을 결성하는 데에 이항의 제자들이 힘썼으며 의병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정유재란에서도 그의 제자들은 의병을 일으켰고 나라를 지켜냈다. 그의 학문적 정신을 본받은 제자들이 호남의병의 근간을 만든 것이다.

그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남고서원 옆에 남고학당을 건립했다. 남고학당에서는 자라나는 새싹선비들에게 바른 정신과 얼을 가르치고 있다.

일재 이항은 성리학의 종조 · 한국 사상의 ‘아리스토텔레스’로 불리운다.¹⁾

그동안 일재 이항 선생의 삶과 학문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그에 관한 전기적 · 사상적 조명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김익두 외, 『정읍사상사』, 민속원, 2017

우리나라 전통 사상의 큰 맥은 '풍월도' 등을 근간으로 하는 토착사상의 맥과 유불선을 근간으로 외래사상의 맥이 부단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외래사상 쪽의 유교 사상은 크게 퇴계 이항의 '이기 이원론'과 율곡 이이의 '기 일원론'으로 대별 돼 형성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말은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언급이다.

그런데 우리 고장 정읍에서 이 두 사상사적 줄기를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사상 곧 '이기 일물설(理氣一物說)', 즉 이와 기는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혁신적이고 탁월한 사상을 구축한 분이 있었다. 바로 일재 이항이다.²⁾

이러한 사상은 서양의 사상사 혹은 철학사로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비견될 만하다. 즉, 서양의 사상사철학사의 주류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되어 플라톤에 이르러 그 형이상학적 체계가 수립됐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의 형이하학 곧 존재론적 기초가 확립됐다.

유교사상사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 사상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일재 이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기가 한 몸에 있으니, 그것을 어찌 이물(二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와 기는 상하의 나뉘는 있으나 서로 원활하게 융통하고 있어 끝없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기가 서로 나뉘면 거기에는 사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기대승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러한 일재의 말은 그의 사상의 핵심을 가장 쉽고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동안 '이기 이원론(퇴계)'과 '기 일원론(율곡)'으로 양분되어온 형이상학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로 융합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사상사에 진정한 존재론을 수립한 위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동안 학계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아, 거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다.

이항은 의영고주부(義盈庫主簿) 이자영(李自英)의 아들로 한양에서 태어났다. 자는 항지(恒之)이고 호는 일재(一齋)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예에 능하고 기세가 남달랐다. 넘치는 기세는 여러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중에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분동마을에 박혀 있는 바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바위에 얹힌 일화는 다음과 같다.

그의 아내는 매일 그를 마중 나갔는데 냇물에 치맛자락이 젖곤 했다. 이를 안쓰러워 하던 그는 아내가 돌을 밟고 오도록 칠보산에 있던 커다란 바위를 집어 던져 징검다리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

비록 여느 위인들처럼 태어나서부터 학문에 뜻이 있지는 않았지만 흉악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제압하는 인물이었다. 28세에 백부 이자견(李自堅)의 충고로 그간

2) 손흥철 외, 『정읍학』 10호, 정읍학연구회, 2023, 201~230쪽

자신의 행보를 뒤우친다. 몸에 배인 기운을 억누르고자 사방에 칼을 꽂아두고 학문에 매진하게 된다.

이렇듯 남다른 의지를 가진 그는 송나라 주희(朱熹)의 '백록동강규(白鹿洞講規)'를 읽고 산에 들어가 수년을 독학했다.

이후 공부를 이어가다 40세가 되던 1538년(중종 33)에 어머니 최씨를 모시고 태인 북면으로 낙향한다. 이후 보림사에 서당을 짓고 현판에 한일(一) 자만을 써놓았는데 이것이 그가 일재(一齋)로 불리게 된 연유다.

그는 정읍에서 생활하며 점차 깨달음을 얻어 호남 유학에 한 획을 긋게 된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이(理)와 기(氣)의 개념으로 철학적 체계를 완성한다. 여기서 이는 만물의 본질적 존재, 즉 정신을 의미한다. 기는 만물의 현상적 존재로서 기운을 뜻한다.

이항의 학설은 지나치게 명목론에 기울어져 있던 당대의 성리학과 철학계를 실질론적 지평으로 끌어 올리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 서양의 사상사나 철학사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비견될 만하다.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사는 큰 틀에서 보면 퇴계 이황의 '이기 이원론'과 율곡 이이의 '이기 일원론'으로 양분된다.

성리학은 삼라만상의 존재와 움직임을 '이'(理)·'기'(氣)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만물 생성의 원리로,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이항은 두 개념의 차별성을 강조한 반면 이이는 양자의 통일성을 중요시한 주기론(主氣論)을 펼쳤고, 양자는 당대 성리학의 흐름을 주도했다.

정읍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일재 이항은 이 두 사상사적 줄기를 융합, 이와 기는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실존한다는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을 펼쳤다.

이항의 업적이 한국 사상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 못한 이유를 그의 제자들이 대부분 전쟁터에서 순국했기 때문 같다.³⁾

일부 후자들은 영남은 학문이 발달했고 호남은 예술이 발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그 실상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선입견일 뿐이다.

경상도에서는 안동과 선산을 중심으로 서원의 설립과 더불어 걸출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됐다면, 전라도에서는 태인·고부·담양·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학문의 꽃을 피우게 되었으며 일재 이항·익재 이희맹·하서 김인후·면앙정 송순·고봉 기대승·송강 정철·오봉 김제민·노사 기정진·목산 이기경·간재 전우 등 걸출한 학자를 배출하며 호남 사림이 형성됐다.

'조선 중엽 호남 북쪽에는 이항, 남쪽에는 김인후, 영남에는 이황, 충청에는 조식, 서울에는 이이가 버티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의 학덕은 크고 넓었으며, 율곡 이이조차도 '청수부용 광풍제월'(淸水芙蓉 光風霽月·맑은 물에 뜬 연꽃이요 화창한 봄바람에 비 온 뒤의 맑은 달)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유학사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충강공(忠剛公) 김제민(金齊閔, 1527~1599)은 정읍 덕천면 도계리 출신으로 이항선생

3) 전북일보 2016년 2월 19일자 기사는 김익두 김익두 교수 등이 '일재 이항 선생과 그의 제자들' 발간에 따른 내용이다. 물로 일리있는 말이지만 반드시 맞다고 단언할 수 없다.

문하로 문과에 급제했다. 훗날 김천일, 고경명장군과 함께 호남 3대 의병장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정읍 남고서원과 도계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정읍 칠보산 일대엔 무성서원과 남고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무성리의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최치원과 신잠, 정극인을 모시고 있어 유명하다.

신라 말 고운 최치원선생이 태산태수로 부임하여 8년 동안 선정을 베풀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임했다.

이에 주민들이 생사당을 세우고 '태산사'라 한 데서 유해한 곳으로 1544년(중종 39) 태인현감으로 부임한 신잠선생이 6년에 걸쳐 선정을 베풀다가 강원도 간성군수로 전임되어 떠나자 주민들이 생사당을 세워 배향하다가 고운선생의 태산사와 합했다.

그 후 1615년(광해군 7) 고을 유림들이 서원을 세웠다. 1696년(숙종 22) 무성서원이라 사액 받았으며 불우헌 정극인, 눌임, 송세립, 목재, 정언충, 성재, 김약목, 명천, 김관선생을 추가로 모셨다.

무성서원은 일제의 침략을 받을 때인 1906년 6월 4일(음력 윤 4월 13일) 면암 최익현 선생을 맹주로 추대하고, 돈헌 임병찬선생의 주동 아래 항일의병 거의의 횃불을 올렸던 곳이다. 전국의 서원 중에서 유일하게 항일구국 의병을 창 의 서원이 된 까닭이다. ⁴⁾

이를 역사에서는 병오(丙午)창의라고 한다. 이들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고 끝내 남의 아래에 있지 않았으니, 저들의 기량으로 필시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으리라. 또, 많은 서원들이 특권 계층으로의 진입을 위한 곳으로 활용됐지만 무성서원은 마을 유림들이 은퇴해 후진을 가르치는 장소였다.

향촌민에게 흥학(興學) 목적으로 세워진 서원이며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 서원이다. 신분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학문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도 했다. 무성서원 향사 인물에 주벽은 최치원, 배향은 정극인, 신잠, 송세립,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의 지역 현인들을 배향했다. 이들 7명의 순서가 어떤 경우라도 뒤바뀌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무성서원과 남고서원은 일본과의 저항에 앞장선 대표 서원이 된다. 우선, 그동안 일재 이항 선생을 기록한 책자는 몇권이나 될까 살펴보았다.⁵⁾

4) 이종근, 새전북신문, 2019년 7월 10일자 기사로,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선봉장에 선 이치백 무성서원 원장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다.

5) 김익두 외, 『호남의 큰 학자 일재 이항 연구』, 돈토서, 2012

김익두 외, 『일재 이항의 사상, 학문, 이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들』, 문예원, 2014,

김익두 외, 『일재 이항선생과 그의 제자들』, 문예원, 2015,

김익두 외, 『정읍사상사』, 민속원, 2017

김익두외, 『일재 이항과 호남사상』, 문예원, 2018

장봉선, 『정읍군지』, 1936

최현식, 『정읍군지』, 1957

최현식, 『신편 정읍군지』, 1974

『정읍군사』, 정읍군, 1985

『정읍시사』, 정읍시, 2003

『내 고장 전북의 뿌리』, 전북도청, 1984

정읍 명산과 칠보산

샘골 정읍을 대표하는 명산은 전국 제일의 단풍을 자랑하는 내장산, 머리에 갓을 쓴 영산기맥의 관문인 입암산, 동학혁명의 진원지인 변산, 방등산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으로 일컫는 두송산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정읍지맥 상에 일곱 봉우리가 춤을 추는 칠보산은 최근까지 산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정읍시의 동쪽에 있으며 칠보면, 북면과 접하고 있다. 내장산에 비해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읍의 진산이다.

전국에 칠보산이 4개 있다.

경기도 화성 칠보산(234m)은 산삼, 멧돌, 잣나무, 황계수담, 사찰, 장사, 금 등의 물산이 많이 나오고 송림이 울창해서 각광을 받는다. 경북 영덕 칠보산(810m)은 더덕, 황기, 산삼, 돌옷, 멧돼지, 철, 구리 등의 물산이 풍부하고, 잘 조성된 휴양림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유금사터에 보물 제64호인 삼층석탑이 유명하다.

충북 괴산 칠보산(778m)은 암릉과 노송이 어우러져 조망이 빼어난 것이 특징이다.

정읍 칠보산(七寶山, 472.2m)은 일곱 봉우리가 춤을 추고 계곡이 수려한 호남정맥 정읍지맥의 산이다.

칠보산은 동, 북, 서의 계곡이 수려하여 '칠보림학(七寶林壑, 칠보숲골)'으로 유명하다. 칠보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연수봉으로, 여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를 지칭한다. 피난지골은 남한골의 좌측 골짜기로 안개가 많아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들이 관군에게 쫓겨 이곳으로 피신했다고 하나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

피난지골은 남한골의 좌측 골짜기로 안개가 많아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들이 관군에게 쫓겨 이곳으로 피신했다고 하나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인다.『한국지명총람』(1981)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주민들이 피난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칠보산 서쪽 기슭의 옥녀봉(玉女峰)이 풍수서에 나오는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 한다. 이 옥녀봉을 거문고에 비유한다. 따라서 거문고(琴)의 뒤쪽(北) 마을에 해당된다고 해서 금북을 '검딤'라고 한다.

칠보산의 '칠보(七寶)'는 산자락의 7개 봉우리가 모두 보석같이 아름다운 산이란 뜻이 담겨 있다.

'칠보'는 무량수경(無量壽經)의 금(金), 은(銀), 유리(琉璃), 파리(玻璃), 마노(瑪瑙), 거

『전북문화예술자료집』, 전북애향운동본부, 1990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 인물』,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0

『신편 정주 정읍 인물지』, 정읍문화원, 1990

『정읍원.사록』, 정읍문화원, 1996

『신찬 정읍문헌록』, 정읍문화원, 1997

『근현대 인물 한국사』,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5

김동필, 『정읍의 전설』, 신아출판사, 1991

『국역 일재선생문집』, 일재선생문집국역추진회, 2002

거(車渠), 산호(珊瑚)를 뜻하며, 범화경의 금·은·마노·유리·거거·진주·매괴(玫瑰, 장미나무뿌리 또는 그 화석으로 붉은 색이다)를 각각 이른다.

불국사의 예배공간인 대웅전과 극락전에 오르는 길은 동쪽의 청운교와 백운교, 서쪽의 연화교와 칠보교가 있다.⁶⁾

지금은 동쪽으로 난 통로로 불국사로 들어가지만 과거 불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곳으로 나 있었다. 동쪽의 백운·청운교(국보 제23호) 두 다리를 건너 대웅전 앞의 자하문을 향해가는 길과 서쪽의 연화·칠보교(국보 제22호) 두 다리를 건너 안양문을 통과해 극락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청운교와 백운교는 대웅전을 향하는 자하문과 연결된 다리를 말하는데, 다리 아래의 일반인의 세계와 다리 위로의 부처의 세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전체 34계단으로 되어 있는 위로는 16단의 청운교가 있고 아래로는 18단의 백운교가 있다. 청운교(靑雲橋)를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백운교(白雲橋)를 흰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놓아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계단이지만 다리 형식의 특이한 구조이다. 다리 아래쪽으로 돌로 만든 연못(석조)이 있었다고 여러 문헌들이 전한다. 지금도 계단 왼쪽에 물이 낙하하는 장치 흔적이 존재한다. 물이 떨어져 물보라가 일면서 무지개가 피어났다고 한다. 8세기 후반 통일신라 당시의 다리로서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며 다리 아래 무지개 모양은 우리나라 석교나 성문 등 반원아치 홍예교의 출발점을 보여줘 매우 귀중한 유물로 인식된다.

청운교·백운교를 오르면 부처님 세계의 관문에 해당하는 자하문(紫霞門)에 이르게 된다. 자하(紫霞)란 '자주 빛깔의 안개'란 뜻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색 광명이 안개처럼 서려있다'는 뜻으로

이 문을 지나면 대진리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청운교, 백운교가 웅장한 멋을 보여준다면 연화교(蓮華橋), 칠보교(七寶橋)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아미타불이 거주하고 있는 극락세계 '연화(연꽃)'와 '칠보(7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불경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연화교와 칠보교를 오르면 극락세계의 관문인 안양문에 이르고 안양문을 들어서면 극락전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물론 이러한 다리(계단)은 누구나 건널 수 없으며, 깨달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다.

연화교 10계단, 칠보교 8계단 등 총 18계단이다. 연화·칠보교는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아미타불이 모셔진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문인 만큼 당대 사람들이 이곳을 오르내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49대 헌강왕(875~886)이 죽자 비구니가 된 헌강왕비도 이곳에서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고 한다

물고개를 지나 전주~순천간 국도 1호선 확포장 도로를 밑으로 통과해 이르는 장명동 구량마을을 지나 신성리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5백여m를 진행하면 장구산(藏龜山)에 이른다.

6) 이종근, 『이 땅의 다리 산책』, 채륜서, 2015, 54~61쪽

1999년 건립된 장구노인회관의 건립비문에 따르면 “옛 신라 현강왕때 연기(烟起)란 사람의 유산가(遊山歌)에 ‘장구산하(藏龜山下)’라는 구(句)가 있어 이로 인해 동명(洞名)이 장구산이 된 것인데, 일제치하에서는 동명이 장구산(長久山)으로 불리었다”고 마을 이름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마을 노인들은 그래서 장구산의 뒷산을 지명 그대로 ‘장구산’이라 부르고, 장구산 마을과 구량마을 사이의 과거 정읍 시내로 통했던 산길을 ‘망구침’, 망구침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자라등’이라 부르고 있다. 모두 칠보산 줄기에 놓여 있는 작은 봉우리들이다.

보림리 관동마을로 발길을 돌리면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선생을 모시는 남고서원이 반긴다.⁷⁾

남고서원은 일재 이항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의 곧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위패를 세운 곳이다. 1685년(숙종 11) 가치를 인정받아 사액을 받게 됐다.

2. 이항 학술대회와 저술

이항 학술대회와 저술은 정읍학연구회의 노력이 가장 돋보인다.

각종 학술 대회 개최와 학술지 ‘정읍학’을 통해 그동안 백제가요 정읍사와 동학 등 고대사와 근현대사에 편중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정읍의 고대와 조선시대 정읍사상에 대해 연구해왔다.

정읍학연구회(회장 김익두·전북대 명예교수)가 2017년 12월 15일 정읍시립중앙박물관에서 ‘일재 이항과 호남사상’이란 주제로 정읍사상사연구 5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는 어떻게 해서 김인후가 호남 인물로는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될 수 있었으며, 일재 이항과 옥계 노진의 관계, 일재 이항과 고봉 기대승의 관계와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 논쟁의 결과 등 호남 학맥이 어떻게 저항과 풍류의 문화적 배경이 되었는지에 등에 관한 논의들이 집중 거론됐다.

정읍학연구회와 민족문화연구소가 주관해 열린 학술대회는 정읍역사문제연구소 김재영 소장의 1부 사회로 전북대 김익두 교수의 ‘일재 이항의 사상적 특성 개관’, 호원대 유화수 교수 토론에 이어 서원대 김범수 교수의 ‘일재 이항과 하서 김인후’ 전북대 김혜수 교수의 토론, 광주대 고영진 교수의 ‘일재 이항과 옥계 노진’, 송원대 서울대 규장각 교수의 토론, 숭실대 박신환 교수의 ‘일재 이항과 소재 노수신’, 연세대 이기용 교수 토론이 펼쳐졌다.

2부 주제발표는 군산대 배상정 교수의 사회로 안양대 손홍철 교수의 ‘일재 이항과 사암 박순’, 강원대 유성선 교수의 토론, 충남대 황의동 교수의 ‘일재 이항과 고봉 기대승’, 한남대 유철로 교수의 토론, 조선대 이철승 교수의 ‘일재 이항과 반계 유형원’, 전북대 이선아 교수의 토론이 마련됐다.

3부 순서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교수의 사회로 전북대 최영찬 교수의 ‘일재 이항과

7) 전라일보 2021년 9월 9일자

여암 신경준', 충남대 김창경 교수의 토론, 전통문화대 최영성 교수의 '일재 이항과 그의 제자들', 전북대 정광수 교수의 토론, 전북대 황갑연 교수의 '일재 이항과 이재 황윤석', 충남대 최정목 교수의 토론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당시 김익두 정읍학연구회회장은 “정읍학연구회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연구한 ‘정읍 사상의 맥’ 속에는 우리나라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일컬을 만 한 일재 이항의 사상과 학맥이 나라에 끼쳤던 영향에 대한 연구였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호남사상이 어떻게 우리의 국토와 역사를 수호할 수 있게 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학연구회는 지난 2013년 정읍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전문 학술연구 단체로, 30여 년의 지방자치 시대 동안 거의 유일하게 쉬지 않고 부단히 지역을 연구해오고 있다.

창간 10주년을 맞은 정읍학연구회가 2021년 학술지 '정읍학' 제8호를 발행했다.

'다시, 세계의 중심 정읍으로'라는 정읍 사상 특집을 주제로, 정읍사상사(김익두, 전북대), 고부 출신 백운 경한화상의 교선일체 사상(김방룡, 충남대), 일재 이항의 이기일물설의 새 해석(김백녕, 전북대), 정읍지역의 근현대 종교-사상의 지형도(박대길, 전북대), 동학혁명사상의 현대적 계승 문제(이춘구, 전북대), 증산 강일순의 사상사적 중심성(김탁,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서예의 한 중심으로서의 정읍서예사(배옥영, 원광대) 등의 특집 논문들과, 태산군 관아지 및 정극인 향학당 터 고증(오언근, 향토사학자) 등 일반 논문이 실려 있다.

정읍학연구회가 2023년 12월 '정읍학' 창간 10주년 기념 특집호를 펴냈다.

지난해 창간 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 이 연구회는 정읍문화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면모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정읍의 위대함 18가지'를 주제로 정읍문화 전체를 두루 다루는 종합 전국학술대회였다.

정읍의 자연·생태, 인문·지리·풍수, 물과 술, 풍류, 고대문화, 공동체문화, 사상, 혁명, 예술, 산업 등으로 분류해 517쪽에 담았다.

손홍철 한양대 명예교수는 '조선 중기 정읍 사상가 일재 이항의 학맥과 이기일물설(201~230 페이지)'를 통해 이항의 철학사상에 관해 그 학문적 유래와 특징을 검증하고, 나아가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을 재조명했다.

정읍학연구회 중심의 '정읍사상사' 등 5권의 저서는 연구의 가치를 더욱 빛낸다.

정읍연구회가 2017년에 펴낸 '정읍사상사-샘골사상의 21세기적 비전'은 손홍철의 '이항의 태극론·이기론과 그 사상사적 의의(193~211페이지)', 황수정의 '일재 이항의 한시문학과 사상(223~259페이지)', 유지웅의 '일재 이항의 철학과 사상-사단칠정에 관하여(261~277)' 등 3편의 논문이 실렸다.

'호남의 큰 학자 일재 이항 연구'는 2012년, '일재 이항의 사상, 학문, 이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들'은 2014년, '일재 이항 선생과 그의 제자들'은 2015년, '일재 이항과 호남사상'은 2018년에 선보였다.

그러나 과거의 책을 보면 이항선생이 너무 소홀히 다뤄졌음이 보인다.

1936년에 펴낸 '정읍군지(편저 장봉선)' 유림편 352페이지, 1957년에 펴낸 '정읍군지'

역시 유림편 215페이지, 1974년에 펴낸 '신편 정읍군지(최현식 등)' 유림편 371페이지와 서원편 남고서원편 287~288페이지에 소개된다.

1985년에 펴낸 '정읍군사(정읍군)' 충효열행자 1338페이지, 2003년에 펴낸 정읍시사(정읍시)' 3387페이지에 간략히 이항선생이 나온다.

1984년에 펴낸 '전북 내 고장 전북의 뿌리(전북도청)'의 '조선중기 성리학의 대가 이항'이 143~144 페이지에 소개됐다.

1990년에 펴낸 '전북문화예술자료집(전북애향운동본부) 정읍시. 정읍군 향교편 305페이지에 남고서원이, 문화예술 선각자편 700~701페이지에 내용이 보인다.

1990년에 펴낸 '문화재지(전북도청)'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1990년에 펴낸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 인물(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의 813페이지에, 1990년에 펴낸 '신편 정주 정읍 인물지(정읍문화원)' 107페이지에 소개됐다.

1991년에 펴낸 '정읍의 전설(지은이 김동필, 발간 신아출판사)'의 187~190페이지엔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조화'가, 1996년에 펴낸 '정읍원.사록(정읍문화원)' 46~57페이지엔 남고서원이 자세하게 실렸다.

1997년에 펴낸 '신찬 정읍문헌록(정읍문화원)' 112~126 페이지엔 노수진의 '이일재묘갈명 병서'의 한문 원문과 번역문이 게재됐다.

2015년 발간한 '근현대 인물 한국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74~81.쪽엔 호남성리학의 비조 이항(이상섭)'이 소개됐다.

국역도 마무리돼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재선생문집국역추진회가 2002년 '국역 일재선생문집(이항 저, 권오영 역)'을 펴냈다. 부록에 원문이 실렸다.

이들 자료가 더욱 더 활용되기를 바란다.

3. '일재 이항의 길을 걷다' 답사 코스 활용

우리 역사에서 16세기는 격변의 시기였다. 무오사화(연산군, 1498년)부터 을사사화(명종, 1545년)까지 일명 4대 사화를 겪으며 조선의 선비들은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귀향을 가게 됐다. 굴곡진 중앙의 정치상황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선비들을 지역 향촌으로 옮겨가게 했고, 이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 젊은 선비를 길러내고 향촌에서 공동체 기반을 다져갔다. 그리고 1592년 임진년에 조선의 백성들은 참혹한 임진왜란을 겪으며 16세기를 지나가게 된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게 되는 쟁쟁한 학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도 대체로 16세기 이때이다.

대표적으로 경상도에서는 남명 조식(1501~1572), 퇴계 이황(1502~1571)을, 전라도에서는 일재 이항(1499~1576), 하서 김인후(1510~1560)와 같은 분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학자들은 걸출한 제자들도 많이 배출했는데, 남명 조식은 의병장 곽재우

(1552~1607)를, 퇴계 이황은 서애 유성룡(1542~1607)을, 일재 이항은 건재 김천일(1537~1593)을, 하서 김인후는 송강 정철(1536~1594)을 제자로 길러냈다.

솔직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일재 이항은 조금 낯설기도 하다.

그렇다고 몇 글자를 통해 대학자 일재 이항의 삶과 학문을 설명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그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임진왜란 때 전라도에서 처음 의병을 일으켰고, 1593년 6월에는 권율과 의병장 광재 우마저 피하고자 했던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백성들과 함께 순국한 건재 김천일(1537~1593), 남원에서 2,000여 의병을 모집해 수원 독산성 전투, 창원, 함안, 대구 등지에서 적을 무찔렀던 도탄 변사정(1529~1596), 66세의 나이에 자신의 세 아들을 모두 데리고 의병장으로 나섰던 오봉 김제민(1527~1599), 세계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안의(1529~1596)와 손홍록(1537~1600) 등이 바로 일재 이항의 학문을 이어받은 제자들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깊은 학문과 뜨거운 우국충정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일재 이항이지만, 많은 제자들이 임진왜란 시기를 통해 죽게 됨으로써 그의 학문과 사상이 온전히 지켜져 내려오기 어려웠겠다는 점이다.

건기 좋은 계절이 오면 '일재 이항의 길'을 답사하며 일재의 행적도 살피고, 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일재 이항의 길'은 정읍 태인면 분동마을에 있는 일재 이항선생의 집터에서 시작하여 정읍 북면에 있는 선생의 묘소를 거쳐 남고서원까지 걷는 길을 말한다.

사액서원이 되면서 명명된 남고서원의 '남고(南臯 : 남녘 남, 언덕 고)'라는 뜻은 일재 이항이 남쪽지방에 강학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문을 논하고 가르쳤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물론 바로 인근에 묘소가 자리하고 있어, 이를 잘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

'일재 이항의 길'을 가다보면 중간에 태인면 매계리 매계교회를 지나게 되는데, 매계교회는 전라도 최초의 목사인 최중진목사가 1900년에 세운 정읍 최초의 교회이다.

아쉽게도 일재 이항선생과 그의 제자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폭넓은 학술 연구와 계승 발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남겨진 행적과 가르침을 심층 분석하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을 도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 두 해에 끝날 일도 아니다. 정읍시의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행정의 체계적 지원이 중요해 보인다.⁸⁾

4. '두꺼비 바위와 남고서원 논두렁바위' 기체험과 수능 대박 기원 활용

면목(面目)바위

정읍시 상동(上洞)과 구룡리(九龍里 : 옛 北面 九龍里) 경계 지점 즉 귀양실(九良부락)

8) 전북도민일보 2022년 7월 18일자

앞 산에 이상하고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 바위를 면목(面目)바위 또는 천병(天病)바위라 부른다.

그런데, 이 바위는 오랜 풍우에 시달렸음인지 그렇게 쳐다보는 탓인지는 몰라도 모양 자체도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 얼굴로 말하면 천병(天病)을 앓다가 찌그러진 그런 모양을 지닌 바위다.

바위 주변에는 소나무와 온갖 잡목들이 크게 자라 그 경관도 좋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일이었다.

귀양실은 인심 좋고 산수가 빼어나 살기 좋은 마을인데도 천병환자가 끊어지질 않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두 사람이었는데 그 수효가 몇 십명을 넘어서자 개인은 물론 동네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병을 앓지 않는 주민들마저 나에게도 그 무서운 병이 옮기지나 않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다.

왜, 유독 이 마을에만 이런 가공할 병이 들어오는지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가 겹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느 집에서는 한 집안에 두서너 명이나 이 병에 걸려 절망적인 삶을 꾸려 가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의학이 전혀 발달하지 못한 때라 병에 걸리면 오랫동안 신음하다가 죽는 길뿐이었다.

별별스런 단방약이 많이도 나돌았지만 이 고질병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어느 날이었다. 이 마을을 지나는 무당이 있었다. 무당은 이 마을에서 이상하고 야릇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필연코 좋지 않은 냄새인데 생각해 보니 이 냄새가 병의 냄새이며 다른 사람은 이 병의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나는 천병의 냄새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무당을 붙잡고 살길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것이었다.

무당은 여러 번 점괘를 풀어 보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겹쳐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쉽게 이 병마가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원체 병이 깊어서 좀처럼 헤어나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런 후에 무당은 갈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무당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제발 좀 좋은 방법을 알려 달라고 끈질기게 붙잡아 두고 말았다.

이 무당은 얼굴이 잘 생겼으며 흰 눈동자 위가 붉은 여자였다.

옛부터도 무녀가 눈의 흰자위 위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경우는 '신발'이 세다고들 한다.

즉 신력(神力)이 세다는 것이다. 무당은 주민들의 간절한 애원을 받아들여 다시 점괘를 빼 보더니 “지금, 산신령이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위에서 무서운 병마를 실어 주어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신령님께 빌고 위로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산신령제를 지내야 합니다. 제사를 모시기 보름 전에 날짜가 정해져야 되고, 한번 날짜가 정해지면 부정을 입히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 것이며 초상집, 제삿집을 가지 않을 것은 물론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시체를 보지 말며 도살은 절대로 안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특히 산신령님의 거처하는 신성한 영역을 더럽히지 않도록 몸을 깨끗이 해야하고 함부로 쓸데없는 상스러운 말을 하여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정성스레 산신령제를 지낸다 해도 천병은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세가 좀 약화되고 발생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마을에서 천병이 물러가려면 상당한 세월이 걸리게 되는데 '저 면목바위가 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평화스런 마을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면목바위가 마을에서 보이지 않을 때'란 말이 무엇을 의미 하냐고 수차 물어 보았지만 무당은 들은 척도 않고 길을 떠나 버렸다. 주민들은 모여서 산신령제를 지내기 위하여 의논하였다.

무당이 가르쳐 준 대로 날짜를 받고 마을 주민들이 무당의 말처럼 부정한 일을 일절 않기로 약속했다. 좋은 술과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면목바위 밑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산신령제를 지낸 후 한달 후부터 이 무서운 병은 조금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새로 발생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렸다.

과연 이 무서운 병이 이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면목바위가 보이지 않을 때'였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나무들이 무성하여 그 바위를 완전히 가려주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서야 주민들은 면목바위가 보이지 않을 때란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 한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귀양실 부락은 산에 묻힌 듯 교통마저 불편했던 옛 벽을 헐고 이제 정읍시(井邑市)에 편입되어 교통도 원활해졌고 산 좋고 물 맑고 인심도 좋아 살기 좋은 평화의 마을로 알려져 있다.⁹⁾

정읍에 이같은 두꺼비 바위, 숫골의 장군바위, 칠성바위와 천하장사 등 바위 이야기가 많아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조화¹⁰⁾

일재(一齋) 이항(李恒)은 1499년(燕山 5年) 서울 신흠동(晨昏洞)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품성이 강직하고 호탕한 가운데 용력(勇力)이 뛰어나 말타기, 활쏘기를 익혀 무관으로 큰 뜻을 이루려하였다. 그런데, 27세 되던 해 백부(伯父) 판서공(判書公)의 교훈을 받아 학문에 깊은 뜻을 두었다.

사서(四書)를 공부하는데 그의 정신이 어찌나 강인했던지 칼을 옆에 꽂아놓고 정신일

9) 김동필, 『정읍의 전설』, 신아출판사, 1996, 87~89쪽

『전설지』, 전북도청, 1990, 96~97쪽

10) 김동필, 『정읍의 전설』, 신아출판사, 1996, 187-190쪽

도하에 공부했다고 한다.

일재의 흥미로운 일화 몇 가지가 전설로 피어올라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

일재가 태인면 태서리 분동(泰西里 粉洞)에 머물 때의 일이었다. 일재는 그 당시 몇 날을 두고, 공부하기에 알맞은 좋은 터를 하나 잡아 서당(書堂)을 지어 보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따뜻하고 청명한 날인데 붓을 들고 상념에 빠져 있었다.

일재는 갑자기 붓을 들고 그 붓대를 손으로 통겨버렸다. 통긴 붓은 손을 벗어나 하늘을 날아 북면 보림리 입점(笠店)부락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다.

그 뒤 일재는 그 자리가 서당으로서 좋은 자리임을 말해 왔는데 1576년(宣祖 9年)일재가 돌아가자 그 이듬해인 1577년 그 자리에 남고서원(南臯書院)이 세워졌다.

이 서원이 세워지자 즉시 일재(一齋) 이항(李恒),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 두 분을 배향(配享 : 功臣이나 학덕이 높은 분의 神主를 모시는 일)했다.

그후 효종(孝宗)때부터 사액(賜額 : 임금의 祠堂, 書院, 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상소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685년(肅宗 11年) 4월에 남고서원이라는 사액이 내려졌다.

1871년(高宗 8年) 조령(朝令)에 의하여 이 서원은 철거되었는데 그 뒤 설단(設壇)하여 다시 향사(享祀)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 철거 명령을 받았을 때의 일이었다. 이때 많은 주민들과 자손들이 철거 명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때를 같이하여 밤이 깊으면 칠보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남고서원 주변을 돌면서 슬피 우는 것이었다.

호랑이가 며칠 밤을 서럽게 울면서 바위를 발톱으로 긁었는데 그 자국이 상당히 패었으며 또 흙을 발톱으로 파헤쳐 큰 웅덩이를 이루었다 한다.

이 지점은 남고서원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어떤 주민이 호랑이가 파 놓은 웅덩이는 좋은 명당이라 하여 이 곳에 묘를 써서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남고서원이 있는 마을이 보림리 입점(寶林里 笠店) 부락인데 마을 앞에 큰 정자나무가 있고 그 정자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위 두 개가 서 있다.

해방 전만 하여도 바위가 서 있던 곳은 산이었는데 지금은 논두렁에서 있다.

큰 바위는 어미바위, 작은 바위를 아들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어미바위(지상높이 약 3m, 둘레 2.6m)의 모양은 꼭 사람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머리 모양이 여인상을 닮았다.

아들바위(지상높이 약 1.5m, 둘레 2m)의 모양은 몸체는 둥그스름하나 위쪽은 뾰족한 편이다. 두 바위의 간격은 3m 를 유지하고 서 있다.

이항선생이 학문을 크게 이루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힘과 재주가 놀라웠다 한다. 얼마나 힘이 세었을까? 보림사(寶林寺) 뒤편 칠보산 용추봉에 올라 바위를 뽑아 던져버렸는데 그 바위 두 개가 바로 어미바위와 아들바위다.

약 2km를 쏘아 버렸으니 겁난다는 말밖엔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 다음 또 하나의 바위를 던져 버렸는데 그 바위는 수십 리를 날아가 태인면 태서리 분동(泰仁面 泰西里 粉洞)마을 앞 냇가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다.

일재가 힘과 재주를 자랑하기 위해 칠보산 용추봉에서 한 번 뛰면 꼭 어미바위 옆에 척척 떨어졌고, 거기서 다시 힘을 내어 태인 쪽으로 뛰면은 태서리 분동마을 냇가에 던져둔 바위 앞에 내려지곤 했다 한다.

그리고, 뭘 때에는 용추봉에서 나막신을 꼭 신고서 뛰었다니 조화(造化)무궁이라 할 수밖에 더 있는가? 그러니까, 어미바위와 아들바위는 일재가 뭘 수 있는 종점의 표석(標石)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재의 높은 학문의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학자들의 출입이 많았다 한다. 학자의 출입이 많으므로 그들이 갓을 썼기 때문에 그 어미바위를 중심으로 하여 입점마을에 갓시장이 섰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입점(笠店) 혹은 관동(冠洞)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던져진 분동 마을의 바위는 던져진 이유가 다른데 있었다.

그때 일재는 태인 분동에서 둘째 부인과 생활하고 있었다. 일재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질 않을 경우에는 그 부인이 꼭 마중을 나갔는데 마중을 나가자면 분동 앞에 있는 냇가를 건너야만 했다.

냇가를 건널 때는 부인의 옷자락이 꼭 물에 젖어 그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재는 다리를 놓으려고 바위를 던져버린 것이었다. 그 바위로 징검다리를 놓아 치마가 젖는 일이 없이 마중을 나갔다 한다.

그런데, 일제때 근방에서는 처음으로 경지(耕地)정리를 하면서 냇가가 없어지는 통에 주민들과 자손들에 의해 그 바위는 옮겨졌다.

자손들의 뜻에 따라 그 바위는 분동마을에 있는 일재의 유허비(遺墟碑) 옆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재는 축지법(縮地法)을 썼다고 하니 참으로 기이하고 흥미롭다.

아침에는 경성(京城)에서 일을 보고 저녁이면 벌써 태인 분동마을에 와서 저녁을 먹었다 한다.

생각할수록 도술이 궁금하다.

1539년(中宗 34年) 칠보산 아래 서재를 세우고 강학소를 운영했는데 항상 일자(一字)의 액자를 붙여 놓아 세인들이 이 서재를 일재라 불렀다 한다.

한번은 사정전(思政殿)의 명종대왕 어전(御前)에서 학문을 논하는데 “도심(道心)은 성명(性命)에 근원하고 인심(人心)은 형기(形氣)에서 나오는 까닭에 두 가지를 자세히 살핀다면 하나이니 하나를 지키는 것이 근본이다”』 고 했다.

그리하여 아들의 이름도 덕일(德一), 수일(守一)이라고 일자(一字)를 붙였고, 일재를 수일재(守一齋)라고도 불렀다.

1566년(명종 12년) 5월 명종대왕은 국내에서 이조(吏曹), 예조(禮曹)에 명하여 경명행수(經明行修)로 고명한 학자를 천거하라하니 그 천거된 인물 중 한사람이 바로 일재였다.

1566년(명종 8年) 일재의 병세가 위독하고 심각하자 임금이 의원을 보내 치료까지 했으나 끝내 1576년 6월 22일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서는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 명하여 크게 예우(禮遇)하는 가운데 장례가 치러졌다.

일재 선생이 가신 지 오래지만 지금도 선생의 높은 학덕을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과 자손들은 그 분의 조화무궁한 일화도 많이도 기억하며 남고서원을 찾고 있다.

남고서원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근처에 두꺼비바위를 살펴보고 가길 추천한다. 이 두꺼비 바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바위의 머리가 향하는 마을에는 풍년이 들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꼬리 부분이 향하는 마을은 여자들이 바람나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온다. 이 때문에 근처 마을사람들이 서로 바위 꼬리부분이 자기 마을을 향하도록 돌려놓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 부분을 마을이 없는 부분으로 향하게 한 뒤 바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시멘트로 고정해놓았다고 한다.

무성서원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서원은 아니지만 주련사에서 이항 선생의 곧은 정신을 배우고 또 일재 이항선생의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 바위도 찾아보고

수수하고 정겨운 마을의 돌담장을 만날 수 있는 남고서원에 찾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남고서원 근처에는 아직도 일재 이항선생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항선생은 축지법을 써서 한양을 하루만에 다녀오기도 하고 힘도 장사여서 칠보산에 올라 바위를 뽑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남고서원을 가다보면 지금도 논두렁에 이항선생이 뽑아 던졌다는 바위가 박혀있다.

그리고 이항선생이 이곳에 내려와 서당을 짓고 생활을 하자 전국 각지에서 갓을 쓴 선비들이 몰려들었다.

이 때문에 마을에는 갓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이 생겼다고 하다.

그래서 남고서원이 위치한 이 관동마을은 이름이 갓을 파는 점포라는 뜻이 담긴 갓점 마을이라고도 불리운다.

보림리(寶林里) 입점(笠店)마을은 칠보산 자락에 위치 갓점, 관동이라 불렀고 가정마을 남쪽에 있다. 두꺼비 바위와 남고서원 논두렁바위'를 기체험과 수능 대박 기원 장소로 활용했으면 한다.

5. 태인지역의 출판 인쇄문화 활용

문화의 전파와 발달은 서적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초기에는 필사(筆寫)에 의하여 서적의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본(寫本)에는 오자(誤字)와 탈자(脫字), 탈문

(脫文) 등이 생기게 되어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 다량 출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쇄가 발명됐다. 조선시대에 전국 군(郡) 단위 이상의 각 고을마다 대부분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고 태인지역도 목활자나 서책을 간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를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간행된 서책의 규모, 종류, 실존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낀다.

조선시대에는 태인지역이 동진강 지류인 대각천(태인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호남평야의 일부를 차지하는 곡창지대로 인쇄출판에 필수적인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될 수 있었다. 더욱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남창(南倉), 산창(山倉), 창삼(倉三) 등에 모아 서해고 보냈으며, 당시에는 이곳이 부안, 고부, 정읍, 김제, 금구, 임실, 순창 등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하여 호남평야 지역의 교통중심지였다.

한편 조선 중기 이후 호남지역은 유학이 크게 진흥되어 사림을 형성하게 되었고, 호남 사림의 형성 이후 향촌사회에 유학이 널리 보급되어 향촌에서 선현을 봉사하고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서원과 사우의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배향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문집, 실기의 간행, 강학교재나 유교서 간행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지역 인쇄출판문화의 바탕을 형성하게 됐다.

태인의 경우 대표적 서원으로는 무성서원과 남고서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불우현 정극인과 더불어 일재 이항이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명망이 높다. 특히 이항은 당시의 호남 사림의 거유인 기대승, 김인후, 노수신 등의 인물과 고유하였고 그의 문하에 많은 제자를 키워내어 호남사림의 주요 학맥을 형성했다.

‘오봉선생집(鰲峯先生集)’은 1695년(숙종 21) 김제민의 증손 김도기(金道器)가 편집·간행한 김제민선생의 문집으로 도계서원에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11)

고서(古書)의 판본(版本)에는 필사본(筆寫本), 목판본(木版本), 목활자본(木活字本),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 등이 있다.

오봉선생집은 목판본으로 나무 판에 판각을 하여 등사한 옛 책이다. 나무판에 글을 새겨 여기에 먹을 바르고 종이를 얹어 찍어내는 방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은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국보 제126호)으로 751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목판 인쇄술은 금속 활자와 함께 이전의 지식 전달 방법인 필사(베껴 쓰는) 방식과 달리, 원하는 만큼 만들어냄으로서 지식의 광범위한 전파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에 입각한 도덕적 질서 구현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배경과 사림의 학파형성에 따라 경전과 문집의 발간이 성행하였다.

내장산 단풍 구경 시 원제목은 ‘內藏山遊賞楓葉 次尹 敬差官 覃休伯亭 韻(내장산유상풍엽 차운 경차관 담휴백정 운)’으로 윤경차관이 지은 ‘覃休伯亭(담휴백정)’이라는 시에서 채운해 지은 내장산 단풍 구경’이다.

11)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유물전 <참고>

行行山路轉無窮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길
 一夜新霜萬木紅 밤새 서리에 나무 나무 단풍이 물들었네
 蕭寺客秋驚忽起 쓸쓸한 절간, 나그네 몸 홀연 놀라 일으키니
 數聲胡雁帶西風 몇 줄기 기러기 소리는 가을 바람을 띄고 가네

- * 내장산 경내에 구비 구비 뻗어나간 단풍 터널은 끝없이 펼쳐진다.
- * 상엽(霜葉)은 서리 맞아 선연하고 투명한 늦가을의 단풍이다.
- * 고적한 절간에 머무는 나그네를 자신의 분신으로 들이민다.
- * 스산한 가을 하늘을 쓸쓸히 나는 기러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오봉선생 생존 당시인 16세기에도 내장산 단풍은 몹시 아름다웠던 모양이다. 오봉집에 실린 수십여 편의 한시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봉 선생은 시문에도 탁월한 솜씨를 보인 이른바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충절이다.

목판의 형태는 광곽의 종류, 광곽의 크기, 계선, 어미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형태에 대한분석을 통하여 책의 형태와 당시 출판과 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다. 본 유물의 광곽은 네 변을 두 줄로 구획하였으며(四周雙邊), 어미는 안쪽으로 향한 3엽의 꽃무늬(內向3葉花紋魚尾)의 속성을 띠고 있다.

남고서원 장판각에도 일재선생의 문집판본을 보관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고 도계서원 등의 목판과 함께 표지 능화판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방각본의 정신을 이을 수 있다.

6. 남고서원 강수재(講修齋) ‘태산가’ 보급

남고서원 강수재(講修齋)에 걸린 주련(柱聯)에는 태산가가 쓰여있다.¹²⁾

안성렬 태산선비문화사료관 관장은 “태산가는 이항 선생이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인 ‘일재집’에도 실려 있다”며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면 목표로 하는 ‘태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誰云泰山高(태산이 높다 하되)
 自是天下山(하늘 아래 뒤흔다.)

登登復登登(오르고 또 오르면,)
 自可到上頭(못 오를 리 없건만,)

人既不自登(사람이 아니 오르고,)

1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블로그에 ‘남고서원’이 소개됐다.

每言泰山高(되만 높다 하더라)

무관을 꿈꿨지만 백부 이자건의 충고로 문인 중의 문인으로 살아가게 된 이항. 서른의 나이로 학문에 도전해 호남 유학의 비조(鼻祖)가 된 그는 '태산가'처럼 살다간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7. 나가는 말

정읍은 백제가요인 '정읍사', 정극인의 상춘곡(칠보 상춘공원), 호남우도농악(정읍농악)의 발원지이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고장이다.

특히 국운이 위태로울 때마다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정읍 사람들이다. 실제로 외세와 폭정에 대항한 동학농민혁명과 1905년 일본의 을사늑약에 항거해 면암 최익현을 중심으로 일어난 무성창의(1906년), 호남지역 독립만세운동의 불씨를 당긴 태인독립만세운동(1919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종교인 증산교와 보천교의 본향이기도 하다. 이들 종교들은 일제강점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고, 독립운동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다.

백범 김구는 광복직후 정읍을 방문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읍에 많은 빛을 졌다”고 했는데, 이는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한 보천교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읍 사람들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지켜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읍의 실천 유학자였던 '일재(一齋) 이항(李恒) 선생'의 영향이 컸다.

호남 성리학의 종조(宗祖)이자 우리나라의 '아리스토텔레스'로 추앙 받는 일재는 통일신라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의 '풍류도' 사상을 유학적인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재창조했다. 일재의 생애와 학문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읍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선비들과 역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임진왜란 당시 각 지역 의병장으로 나섰던 그의 제자들은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장군을 비롯 54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중심인물인 안의(安義, 1529~1596)와 손홍록(孫弘祿, 1537~1610) 선생 역시 그의 제자들이다.

임진왜란 당시 4대 사고 중 서울 춘추관과 충주, 성주 3곳의 실록이 불타버리고 전주 사고(전주 경기전)마저 소실될 위험에 처한다. 이때 수많은 정읍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지켜냈다. 안의와 손홍록 선생이 사재를 털고 목숨을 걸면 서까지 실록을 지켜내고자 한 의지 덕분이기도 했지만 승병장 희묵대사가 이끄는 승군, 무사 김홍무를 비롯하여 이름 없는 사당패와 노비 등 모든 정읍 사람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만일 정읍 사람들이 실록과 태조어진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선 전기 역사를 알 수 없을 테고 태조어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4·19혁명, 6·10 민주화운동, 2017년 시민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 약무정읍(若無井邑) 시무민주(是無民主), 정읍(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의 물길을 바꾼 동학농민혁명이 정읍에서 일어났던 것은 기개 넘치는 선조들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이다. 실록과 어진을 지켜낸 정읍인들의 도도한 기상과 역사적 사명감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전봉준장군, 김개남장군과 함께 혁명을 이끌었던 손화중장군이 손홍록선생의 후손이라는 데서 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정읍은 발전 잠재 여건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문화자원의 고부가 가치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문화자원의 고품질 콘텐츠화와 첨단과학단지 기업 유치, 원도심권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피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소개된 자료와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정읍이 한국 사상사의 원조임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알릴 때이다.



김제민 문집에 실린 내장산 단풍 구경



두꺼비 바위



일재 이항이 칠보산에서 뽑아 던졌다는 바위

일재 이항의
학문과 사상

☞ 토론회

「일재 이항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을 읽고
최혜미 충북대학교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과 고찰」을 읽고
이형성 전남대학교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읽고
김희경 고려대학교

「一齋 李恒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을 읽고
조일형 한국학호남진흥원

「一齋 李恒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의 토론문

최혜미 (충북대학교)

16세기 조선은 사림의 시대로 접어들며 성리학 연구가 본격화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호남 지역의 학자인 이항은 학계에서 전국적인 명성이 있었음에도, 현대에 저술이 많이 전해지지 못한 탓에 실제 위상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오보라 선생님의 논문은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넘어, 이항과 관계된 학자들의 여러 기록을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이항의 학문적 위상과 학적 네트워크를 면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파나 지역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하게 교류했던 16세기의 학계의 활기찬 모습과, 학계의 중심에서 전국의 명망 있는 학자들과 활발하게 논쟁하며 성리학 발전에 기여한 이항의 역사적 위상이 실증적으로 구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해석과 글의 논지에 큰 이견이 없으며, 발표문을 읽으며 생긴 사소한 의문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이항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보충

이항은 유력한 학맥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이력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학문적 역량과 혼맥 등에 기반하여 16세기 학계의 주요 인사로 인정된 점은 본문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근대 인물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가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항의 星州李氏가 양반 가문이었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당시에 그의 집안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가까운 시기의 친족 중에 정치사회적으로 유력한 인물이 있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 발표문과 해제에 따르면 『一齋集』 문집 발간에 참조한 인사에 朴世采·宋時烈·尹拯 등이 확인되는데 이들 역시 정치적·학문적으로 당대 서인 최고의 유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이항의 문집의 발간을 참조하고 지지한 것에 어떤 사회적 맥락이 있었는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전라도 낙향 이유에 대한 추정

이항은 서울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40세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거주했다가, 40세에 모친을 모시고 전라도 태인현으로 내려갔고 이후에 이항의 강학과 교육 및 교유가 대부분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낙향의 원인은 불상이라고 하였지만 혹시 개인성 있는 가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朴英(1471~1540)의 학문적 영향

이항의 수학과 관련하여 40대 초반에 박영을 찾아가 2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 가르침을 청했다는 설명이 있는데(2면) 이를 좀 더 부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집필하신 『해제』에서도 확인되듯, 박영 역시 무인으로 출신한 뒤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던 이력 덕분에 그 역시 ‘張橫渠’로 비유되기도 하였고, 박영의 학문적 명성 또한 『大學』에 대한 조예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련성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조금 번다하지만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전하는 4권 2책의 박영의 문집 『松堂集』(1905년 三刊本)을 살펴보면 제2권은 『대학』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특히 『大學經一章演義』에는 『四書大全』의 주석뿐만 아니라 대전본에 없는 吳程·劉剡 등 元明 학자의 주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컨대 박영이 참고한 책은 『사서대전』과 함께 대전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조에 간행된 『四書輯釋通義大成』이 아닌가 하는데¹⁾ 이 책은 그리 많은 부수가 인쇄되지는 않았을 것이나 양녕대군의 외손이었던 박영이 입수해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컨대 박영이 『대학』의 연구로 명성이 있었던 데에는 元明대의 주석서를 폭넓게 고찰하여 학설을 세웠던 점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이항 역시 『대학』 연구로 고평가 받았던 만큼 그 배경에는 박영과의 교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박영과의 학적 교류가 이항의 학문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기타

- 5면 : ‘隱逸로서 사헌부 벼슬에 제수된 것은 이항이 처음이다.’라고 한 조공섭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천거로 출사하여 사헌부 감찰에 올랐던 유명한 인물로 金宏弼도 있습니다. 재야에서 추천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청직을 제수받는 것이 물론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본문의 인용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 오탈자 : 4면 改刊 → 開刊, 9면 허엽 → 허엽

1) 심경호(1999), 『조선후기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437면.

안유경 선생의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과 고찰」을 읽고

이형성(전남대학교 학술교수)

호남지역에 산재(散在)한 문사철 자료들은 적지 않다. 이들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조사, 그리고 체계적 정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출발한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자료수집, 체계적 조사와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많은 자료들 가운데 선별된 자료를 번역하여 그 자료를 웹사이트(web site)를 통해 연구자를 비롯한 일반들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의 『일재집(一齋集)』이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새롭게 번역, 출간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이다. 주지하다시피, 이항은 16세기에 활약한 호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젊어서 무예를 익혔는데, 궁마(弓馬)에 뛰어났다. 28세 때 백부 이자견(李自堅)의 영향으로 도봉산에 들어가 무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에 전념하고, 무과 출신으로 성리학을 연구하여 명유가 된 송당(松堂) 박영(朴英: 1471~1540)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1538년 을사사화를 예견하고 모친을 모시고 전라도 태인현 분동(粉洞)에 은거한 이후, 당대 자신보다 젊은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김인후(金麟厚: 1510~1560)·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는 ‘태극설(太極說)’ 등에 관하여 담론하고 또 기대승과 함께 ‘천리성명도설(天理性命圖說)’도 강론하였다. 진도에서 유배중이었던 노수신(盧守愼: 1515~1590)과는 중국 명나라 학자 나흠순(羅欽順)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논변도 하였다. 더욱이 멀리 경상도 산청의 조식(曹植: 1501~1572)을 비롯한 허엽(許曄: 1517~1580), 그리고 남언경(南彦經: 1528~1594)과 남언기(南彦紀: 1534~?) 형제와도 교유하여 명성이 자자하였다.

오늘 발표하신 안유경 선생(이하 필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맥을 계승한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성리학 연구로 학위를 받은 이후, 중국철학 관련 저서, 한국의 문집 등을 번역하여 출간하고 이를 기초로 수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문적 안목이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항의 성리설 연구를 크게 이기론과 심성론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일재집』에 수록된 성리학 관련 글은 주로 김인후·기대승·노수신·허엽 등과 담론한 것으로, 그리 많지 않다. 필자는 1차적 원전 자료와 선행연구까지 꼼꼼히 살피고 이항의 성리설을 다루었다. 특히 이항이 주돈이의 「태극도」를 원용한 것에 대한 상응관계를 꼼꼼하게 설명하고, 또한 기존연구에서 이항의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을 나흠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 것을 벗어나, “무인출신답게 관념적·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성·객관성을 중시하는 그의 현실적 사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기존연구에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한다. 논문의 논지나 전개방식은 매우 정연하고 일관되고 있어 특별하게 논

쟁하고 질의할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논평자는 논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하면서 그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시대 학자들은 누구나 중국 송나라의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와 「태극도설」, 그리고 주희(朱熹)의 「태극도설해」를 중심으로 성리학을 탐구하였다. 이항이나 기대승도 물론 이러한 경향이다. 이항은 주돈이 「태극도」를 원용하여 기대승을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태극도」를 바라본 이항이 주돈이의 성리설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기대승의 관점이 주돈이에 가까운 것인가? 분명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둘째, 성리학에서 리와 기의 관계를 설명할 때,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와 “리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에 따른 이기선후 문제를 고려할 때 이선기후(理先氣後), 기선리후(氣先理後), 이기무선후(理氣無先後) 등이 거론된다. 리와 기에 대한 지향점에 따라 선후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항은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이란 두 측면을 이해하면서도, 일물(一物) 또는 일체(一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기불상리에 가깝다. 또한 이항을 ‘이기무선후’와 ‘기선리후’로 이기론을 규정하는 것 역시 ‘이기불상리’에 가깝다. 필자는 이항을 ‘기선리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 이는 논리적 또는 인식론적 차원이다. 만약 이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기 중시적 성리설’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항의 ‘기선리후’의 사유에는 현실적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양을 통해 도덕적 경건성을 지향하기 위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셋째, 이항은 심(心)과 성(性) 역시 일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심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는 논지에서 보더라도 옳은 논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항은 나흠순이 인심과 도심을 ‘체(體)’와 ‘용(用)’으로, 또는 ‘고요함[靜]’과 ‘움직임[動]’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항은 인심과 도심을 ‘체’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용’으로 보는 것인가? 더욱이 이항의 인심도심을 심·성·정에서 어느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하다.

넷째, 기존연구는 이항을 호남 유학 곧 성리학의 첫 출발점에 있는 학자로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조선유학의 사적 흐름에서 이항의 성리학에 대한 위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다섯째, 연도가 틀린 부분이 있어 지적한다. 필자는 12쪽 인용문 다음에서 “이 글은 1516년에 노수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라고 하였다. 노수신이 1515년 태어났으니, 아마도 1516년이 아니고 1561년일 것이다.

끝으로, 일재 이항의 성리학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접하도록 해주신 필자와 학술대회를 주관한 주최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토론문

김희경(고려대)

이종근 선생님의 발표문은 16세기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일재(一齋) 이항(李恒)과 그를 모신 정읍의 남고서원(南臯書院)에 관한 자료들을 문화 콘텐츠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이항에 관한 여러 유적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읍 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유산들을 확인하고 그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써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문화콘텐츠’는 근래 들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련 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그 정의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 요소들이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상품’이며, 그 특성으로는 ‘대중성, 오락성, 상업성, 창조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항과 남고서원’을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중성의 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친숙한 대상이어야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이른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재 이항은 발표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자로 여러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에 비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학자들에 비해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남고서원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항과 남고서원을 문화콘텐츠화 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항의 여러 업적과 남고서원의 존재 및 가치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발표문에서 이항의 업적이 한국 사상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 못하게 된 이유로 ‘그의 제자들이 대부분 전쟁터에서 순국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전북일보」 2016년 2월 19일자 기사를 인용하고, 그에 대한 각주에서 ‘물론 일리 있는 말이지만 반드시 맞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외에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여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 이항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발표자께서는 「전북도민일보」 2022년 7월 18일자 기사를 인용하여, 정읍 태인면 분동마을에 있는 일재 이항 선생의 집터에서 시작하여 정읍 북면에 있는 선생의 묘소를 거쳐 남고서원까지 걷는 「‘일재 이항의 길을 걷다’ 답사 코스」를 언급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있다면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관광 항목에 ‘선비 체험길(가칭)’(위치: 북면 북흥리[관동~탐성 마을])이라는 산책길이 있는데, 남고서원과도 연계하여 옛날 선비들의 과거 시험길을 체험하도록 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의 둘레길이나 답사 코스가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지역 문화적 가치를 지닌 답사 코스에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다면 효과적인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태산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문에서는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지만, 「태산가」는 이항과 남고서원에 관한 자료들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알려진 작품일 것입니다. 대중성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에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산가」는 남고서원 강수재(講修齋)에 걸린 주련(柱聯)에 적혀 있는 것 외에 이항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태산가」의 작자가 이항이 아닌 양사언(楊士彦, 1517-1584)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태산가」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자가 이항이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관한 연구 성과나 발표자께서 생각하신 좋은 홍보 및 활용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一齋 李恒의 학문 위상과 교유 양상」에 대한 토론문

조일형(한국학호남진흥원)

오보라 선생님의 이 논문은 16세기 주목할 만한 성리설을 주장했던 유학자 一齋 李恒(1499~1576)에 대해 당대 존경을 받았던 규암 송인수의 평가와 호남과 근기, 영남에서 교유했던 인물들의 교유 양상을 통해 이항의 학문적 위상과 사상적 면모를 살핀 글입니다. 기존 연구가 이항의 생애와 사상 특히 理氣一物, 태극음양 등의 성리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기대승, 이항 등의 사상과 비교되어 논의되었던 점에 반하여 그를 평가했던 인물이나 교유인물에 주목하여 그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을 폭넓게 고찰한 점은 매우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논문의 주지와 분석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글을 읽는 동안 들었던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서는 2장 일재의 학문에 대한 당대 평가에서 이항이 뚜렷한 사승 관계 없이 자득의 학문을 추구하면서 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가 규암 송인수(1499~1547)와의 만남이었다고 언급하시면서,

박세채가 쓴 『일재집』 서문에, “송인수공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맨 먼저 선생을 찾아와서 도를 강론하고 말하기를, ‘**실천**이 어찌 꼭 張橫渠보다 못하겠는가.〔宋公麟壽出按, 首訪講道曰, 實踐何必減張橫渠.〕’라고 하였다.”라고 한 부분과

또 박세채가 서문에서 “하물며 용감하게 孫武와 吳起의 兵家에서 탈피하여 한번 변하여 도의 경지에 이르렀고 우뚝히 **실천**하고 정밀히 나아간 우리 일재선생 같은 이는 어찌 기이하고 걸출하여 고금의 제현보다 빛나지 않겠는가? 〔而況勇逃孫吳, 一變至道, 卓然實踐而精詣, 如我一齋先生者, 詎不奇偉絕特, 有光于古今諸賢哉!〕”라고 했던 부분 등을 인용하여

송인수가 바로 이항을 장재에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한 까닭은 이항이 무예를 좋아하던 젊은 날의 기질을 버리고 성인의 도에 나아가 수양에 힘쓴 것이 장재가 기질을 변화시켜 도에 나아가 성리학적 기초를 닦은 것과 같다. 즉 이항이 ‘**기질변화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장재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위 글의 내용대로라면 송인수가 말한 **실천**은 이항이 ‘병법을 좋아하고 무관이 되고

자 했던 기질을 변화시킨 행동’에만 국한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실천’이라는 의미를 확대하여 기질을 변화시켜 爲己之學의 학문을 실천했고 『대학』에 침잠하여 修己治人の 덕목을 실천했으며 제자 양성이라는 실천을 한 것 등 학문의 성취와 덕성의 면모가 장횡거와 비견할 만하여 송인수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요?

2.

이항에 대한 평가는 송인수 외에도 휴암 백인걸이 “南冥 曹植(1501~1572)에 견줄 만하다.”라고 하였는데 이항을 조식에 견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높은 덕과 학문을 갖추었는데도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을 탐구하며 제자 양성을 하였기 때문일까요?

3.

3장 일재의 교유 양상과 그 의미에서 호남, 근기, 영남지역에서 학맥, 훈맥, 인맥으로 교유했던 인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주요 인물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지역	관계	양상	교유 내용	교유 방법
노수신	호남	외당숙	훈맥	인심도심 논쟁 (나흠순노수신)	편지
노진	호남	제자	인맥 신잠(태인현감/노 진의 매부)	『대학』의 종지를 알게됨	대면
김인후	호남	사돈	훈맥	이기론	서신
기대승	호남	제자	인맥(김점: 기대승의 장인)	이기론	서신
남언경 남언진 남언기	근기	제자	인맥(화담학파)	敬 강조, 이기설, 費隱章	대면
허엽	근기		인맥(화담학파)	心先動, 이기설,	
이구	근기	동문 (스승 : 윤정)	학맥(화담학파)	이기설	대면
박영	영남	스승	학맥		대면
이항 및 제자들(심의 겸, 정유길, 최응룡, 신옥, 구봉령)	영남	다른 학파	인맥	이기설	제자들을 통해 간접 교류

당시 위 인물들과의 이기설에 대한 토론은 성리학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셨는데 이항의 성리설이 그 당시 이기론과 심성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